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함께하는 충북의
밝은 미래를 위한 빅데이터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함께하는 충북의
밝은 미래를 위한
빅데이터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 이용자들 ● 위하여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는 50여 년간 발간된 충북통계연보와 KOSIS(국가통계포털시스템)에 수록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행정자료와 유관기관에서 제공된 자료를 추가하여 비교 편집한 것입니다.

분야별 자료는 1961년부터 2015년까지 발간된 충북통계연보에 수록된 최고(最古) 년도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 년도의 통계치를 비교분석 하였으며, 자료가 미비하고 분석이 불가능한 자료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통계자료 단위가 서로 달라 비교할 수 없는 경우 최근 년도 단위를 기준으로 환산하였으며, 항목이 유사한 것은 동질에 가까운 것과 합산하였고, 반올림·절사 등으로 해당 년의 통계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표에서 사용되는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P] : 잠정치(추후 확정치 공표됨) [-] : 해당숫자 없음(공란 포함) […] : 해당 숫자 미상

수록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043-220-2341~2343)이나 자료출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하며, 재사용하려면 발행기관인 충청북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ONTENTS

1 일반현황

위치 및 면적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북도	12
기후	강수량의 계절별 변동폭이 커지고 있어요	14
행정구역	도시화 지속, 발전하는 충북!	16
공무원 수	충북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8
조세 징수 및 부담	국세 및 지방세 금액, 폭발적 증가	20
재정자립도	충북의 살림살이, 살펴보아요	22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청주	24



2 인구

인구추이	인구감소 추세에도 충북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28
인구통태	출생률, 혼인을 저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시급	30
인구이동	좋은 일자리를 가진 매력도, 충북!	32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충주	34

3 농업축산임업



농가 및 농가인구	농가 및 농가인구 감소, 최근 은퇴영농 확대로 회복세	38
경지면적	경지면적 감소와 논농사 급감세	40
식량작물 생산	식량작물 경작면적은 급감, 미곡과 잡곡 생산은 늘어	42
채소류 생산량	충북의 대표 채소는 "배추, 수박, 토마토"	44
과실류 생산	충북의 대표 과일은 "사과, 복숭아, 포도"	46
가축사육	충북은 유기농 축산으로 변신중이에요	48
산림면적	충북의 산림 보전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50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제천	52

4 지역경제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일자리 많은 충북을 만들어요!	56
산업별 취업자	충북의 일자리, 2차산업 비중이 작고 3차산업 비중이 높아	58
연령별 취업자	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60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경제 규모변화를 보여주는 GRDP	62
사업체 현황	사업체수는 전체적으로 증가, 도소매업은 감소	64
광업, 제조업체 현황	광업·제조업체는 꾸준히 증가	66
석유류 소비량	주로 자동차, 난방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68
소비자 물가지수	술, 담배 가격은 오르고 통신비는 줄고	70
무역수지	수출 150억 달러 무역수지 연속 흑자	72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보은		74

5 건설 환경

주택현황	도시화로 인한 공동주택 주거 확대	78
주택 점유형태	1인가구 증가로 월세, 사글세 비중 급등	80
도로	사통팔달, 충북의 도로 현황	82
하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바람직한 하천으로	84
전력	산업용(제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86
상수도	1일1인 급수량 지속적 상승세	88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옥천, 영동		90

6 보건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어요	94
유형별 장애인 등록 현황	2010년 이후 장애인 점감 추세	9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심한 맞춤형 배려가 필요해요	98
의료시설	건강한 삶! 의료시설 꾸준히 증가	100
의료인력	고급 인력의 역외유출 억제, 역대 산업 육성 시급	102
국민연금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	104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증평, 진천		106

CONTENTS

7 교통관광



자동차	자동차, 이제는 생활 필수품	110
전화가입자 수	가정용 가입자는 감소, 기업용은 여전히 증가세	112
인터넷	스마트폰 영향으로 컴퓨터 보급율 하락세	114
관광객	함께하면 행복한 충북나드리	116
여권	해외 유학, 여행 등 당분간 확대 추세	118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괴산, 음성	120

8 교육문화

학교 현황	초등학교는 감소, 대학교는 지속적 증가	124
유치원	보육 시설 늘어나 부모 부담 감소	126
초등학교	학교와 학생수는 감소 추세지만 교육여건은 개선되었어요	128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줄고 있어요	130
고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인문교육과 직업교육 등 다양하게 나타나	132
공공도서관	도서관! 문화체험공간으로 거듭나다	134
문화재 현황	도심 속 가까이 향유하는 문화	136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단양	138

9 안전재해



화재발생	충북화재발생, 실화 비중 88.5%로 가장 높아	142
교통사고	도내 교통사고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	144
풍수해 발생	내륙도로 풍수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충북!	146
범죄 발생 및 검거	범죄발생은 12배 이상 증가, 검거는 11배 증가	148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도내 범죄 폭력, 절도가 대부분	150

충북의 하루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출생
37명



사망
29명



혼인
24쌍



이혼
10쌍



인구이동
1,172명



지방세
3,261원
(1인 1일 부담액)



**1인당
GRDP**
87천원
(1인 1일 GRDP
/2014년 기준)



**석유
소비량**
32천 배럴



**세대당
자동차
보유**
1대



급수량
422리터
(1인 1일 급수량)



관광객
50천명



여권발급
289명



화재발생
4건



**교통사고
발생**
26건



범죄발생
148건

12

위치 및 면적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북도

14

기후

강수량의 계절별 변동폭이 커지고 있어요

16

행정구역

도시화 지속, 발전하는 충북!

18

공무원 수

충북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

조세 징수 및 부담

국세 및 지방세 금액, 폭발적 증가

22

재정자립도

구조적 문제로서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 시급

위치 및 면적

2015년 기준
총면적 **7407.2** km²
전국의 **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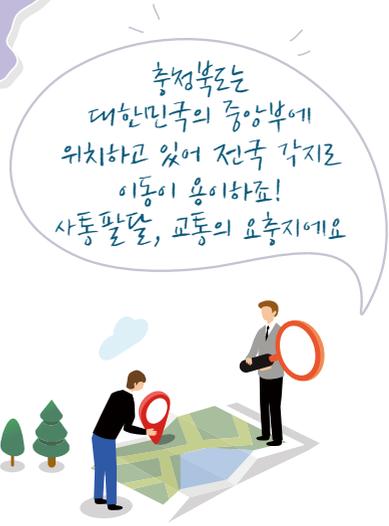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북도

충청북도(忠淸北道)는 대한민국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도이며, 국내 유일의 바다를 접하지 않는 도이다.

서쪽으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리), 동쪽으로 경상북도(단영군 영춘면 의풍리), 남쪽으로 전라북도(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북쪽으로 경기도, 강원도(제천군 백운면 운학리)와 접하고 있다.

충북의 면적은 전국의 7.39%로 1960년 7.40% 보다 0.01%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종시 개청(2012년)에 따라 충북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던 청원군 부강면 일부가 편입된데 따른 것이다.



구분	면적(km ²)	동단		서단		남단		북단	
		지명	극점	지명	극점	지명	극점	지명	극점
1960	7418.38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동단	동경 128° 38' 15" 북위 37° 03' 45"	청원군 강외면 상봉리 서단	동경 127° 16' 40" 북위 36° 38' 15"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남단	동경 127° 46' 05" 북위 36° 00' 35"	제천군 백운면 운학리 북단	동경 127° 58' 55" 북위 37° 15' 20"
2015	7407.2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동단	동경 128° 38' 15" 북위 37° 03' 45"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리 서단	동경 127° 16' 40" 북위 36° 38' 15"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남단	동경 127° 46' 05" 북위 36° 00' 35"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북단	동경 127° 58' 55" 북위 37° 15' 20"

자료 : 토지정보과

기후

연평균 **12~14°C**

연강수량 **900~**

1,400 mm
까지



강수량의 계절별 변동폭이 커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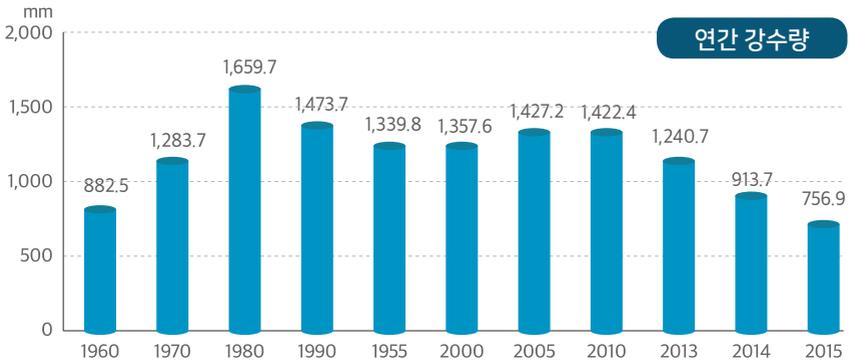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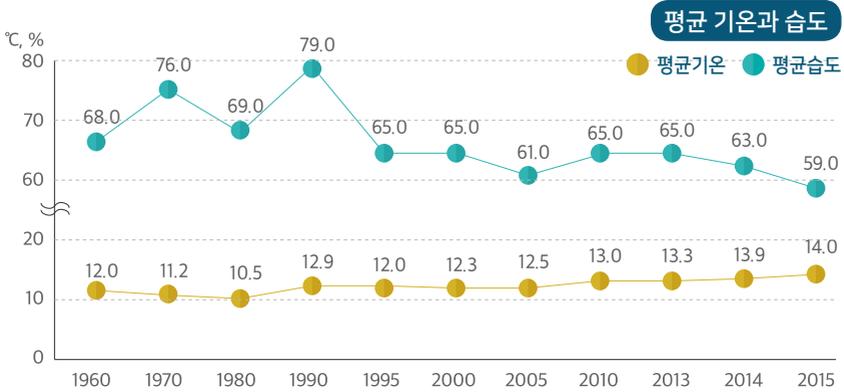
충청북도의 연평균 기온은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역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강수량은 봄과 겨울은 감소하고 여름과 가을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 물 관리, 농업 및 산림 생태계 등의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충북의 기후는 청주, 보은, 충주, 제천, 추풍령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기상청 분류) 청주는 한반도의 대표적 온대지역으로 북한의 한대와 남단의 난대의 중간적 기후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 대표적 지역이다. 보은은 충북 남부의 대표적 분지지역이며, 충주는 내륙 중앙부에 위치하여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제천은 내륙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을 나타내고 있다.



한반도의 대륙성 온대지역으로
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요~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구분	기온(°C)			평균습도 (%)	강수량 (mm)	비고
	최고	최저	평균			
1960	35.0	-15.1	12.0	68.0	882.5	추풍령
1970	33.7	-20.0	11.2	76.0	1,283.7	청주
1980	32.8	-18.9	10.5	69.0	1,659.7	
1990	36.8	-19.3	12.9	79.0	1,473.7	
1995	35.7	-13.9	12.0	65.0	1,339.8	
2000	33.6	-13.5	12.3	65.0	1,357.6	
2005	34.0	-15.0	12.5	61.0	1,427.2	
2010	35.7	-15.1	13.0	65.0	1,422.4	
2013	35.5	-16.9	13.3	65.0	1,240.7	
2014	36.0	-9.7	13.9	63.0	913.7	
2015	36.4	-10.8	14.0	59.0	756.9	

※ 청주지역은 1967년 1월 1일부터 관측 하였음.

자료 : 청주지방기상지청

1949년 당시
1시 **10**군에서
현재 **3**시 **8**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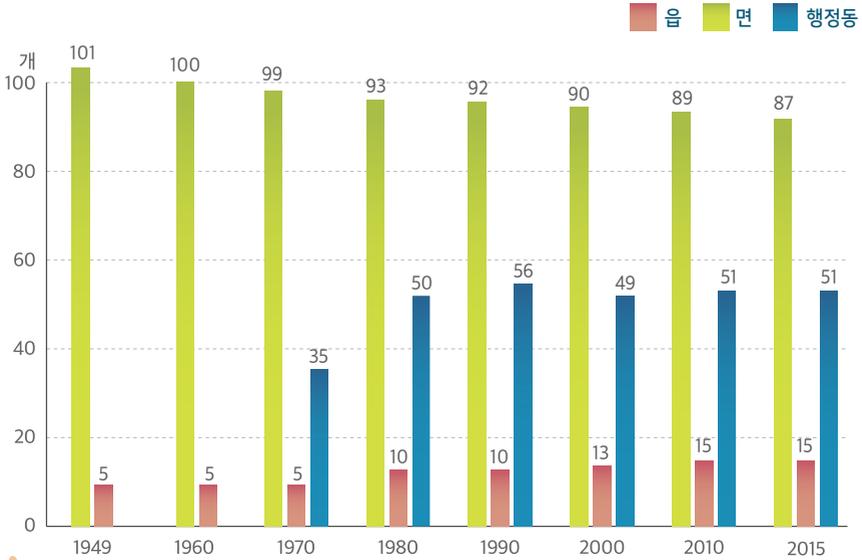
충북은 청주, 충주, 제천 등 3개의 시와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등 8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화 지속, 발전하는 충북!



1949년 당시 충북의 행정구역은 1시(청주) 10군(괴산, 제원,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증원, 음성, 진천, 청원)의 체제였으나, 이후 충주시와 제천시가 시로 승격됨에 따라 3시 10군의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후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충주(중원군)와 제천(제원군)이 통합되었고 (3시 8군), 2003년 증평군이 괴산군과 분리되었다(3시 9군). 이후 2014년 청주(청원군)가 통합됨에 따라 현재와 같이 3시 8군 체제가 되었다.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은 3시(청주, 충주, 제천), 8군(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증평, 진천)이며, 3시 8군 밑에 15개 읍과 87개 면, 51개 행정동(법정동은 136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 : 개

구분	시	군	읍	면	행정동	비고
1949	1	10	5	101	-	
1960	2	10	5	100	-	
1965	2	10	5	99	-	법정동(62)
1970	2	10	5	99	35	법정동(62)
1980	3	10	10	93	50	
1990	3	10	10	92	56	
1995	3	8	12	91	61	
2000	3	8	13	90	49	
2005	3	9	13	90	50	
2010	3	9	14	89	51	
2013	3	9	15	87	51	
2014	3	8	15	87	51	
2015	3	8	15	87	51	법정동(136)

자료 : 자치행정과, 충북통계연보

공무원 수

공무원 1인당 도민수가

1960년
479에서

 2015년
124로 감소

도민의 안녕을 위해...
작은 목소리에로 귀 기울이겠습니다



충북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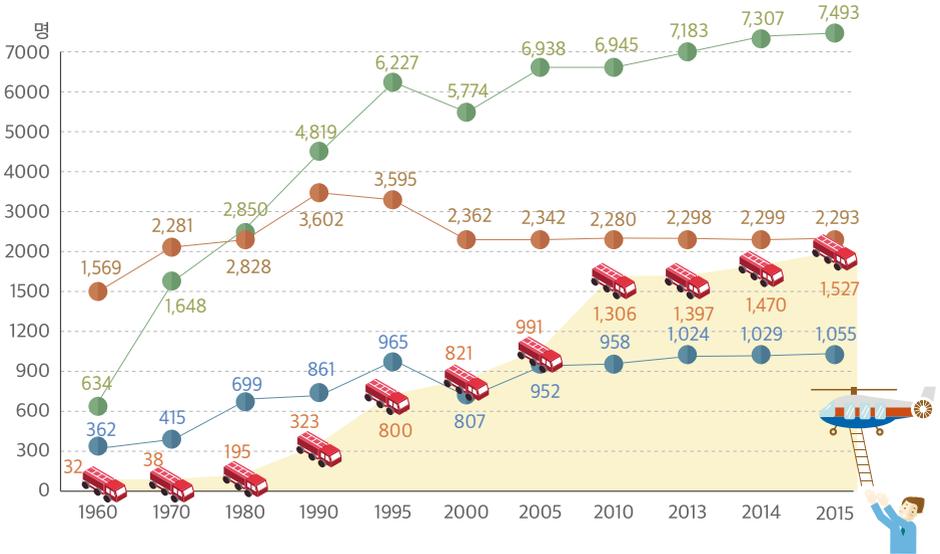
충청북도 공무원 수는 점차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공무원 1인당 도민수가 479명(1960)에서 308명(1970), 204명(1980), 139명(1990), 142명(2000), 130명(2010), 124명(2015)으로 감소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내고 있다. 충청북도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 이러한 현상은 공무원의 대도민 행정서비스 대상 및 내용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한편 대도민 서비스 범주가 사회복지, 소방 등의 범주로 확산됨에 따라 일선 시군구 및 소방서 소속 공무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위해
대중민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소방서 공무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 도본청 ● 시군구 ● 읍면동 🚒 소방서



단위: 명

구분	계	도본청	의회및직속기관 사업소	시군구	읍면동	소방서	공무원 1인당 도민수	참고(도민수)
1960	2,860	362	263	634	1,569	32	479	1,369,313
1970	4,724	415	342	1,648	2,281	38	308	1,454,824
1980	6,969	699	592	2,850	2,828	195	204	1,424,785
1990	9,991	861	709	4,819	3,602	323	139	1,390,150
1995	12,524	965	937	6,227	3,595	800	112	1,396,728
2000	10,539	807	775	5,774	2,362	821	142	1,501,459
2005	11,884	952	661	6,938	2,342	991	126	1,501,674
2010	12,119	958	630	6,945	2,280	1,306	130	1,573,981
2013	12,605	1,024	703	7,183	2,298	1,397	127	1,600,163
2014	12,814	1,029	709	7,307	2,299	1,470	126	1,609,588
2015	13,074	1,055	706	7,493	2,293	1,527	124	1,616,589

자료 : 자치행정과, 충북통계연보 (정원기준임)

조세징수 및 부담

1960년

270 백만원에서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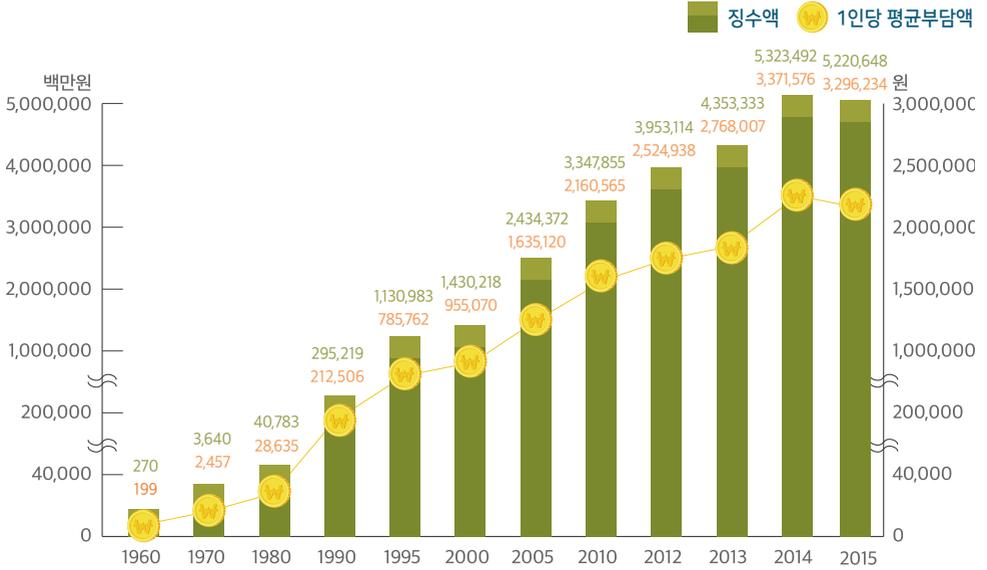
5,220,648 백만원으로



국세 및 지방세 금액, 폭발적 증가

충청북도의 국세 및 지방세 금액은 270백만원(1960)에서 40,783백만원(1980), 1,430,218 백만원(2000), 5,220,648백만원(2015)로 폭발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의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충북의 산업구조가 전통농업 중심에서 반도체와 태양광 바이오 등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부담액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이 1960년대에는 75:25였으나 현재는 64:36으로 지방세의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지방세의 비중이 미국, 일본 등과 같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징수액(백만원)			1인당 평균부담액(원)		
	총액	국세	지방세	총액	국세	지방세
1960	270	205	65	199	150	49
1970	3,640	2,992	648	2,457	2,020	437
1980	40,783	24,469	16,314	28,635	17,180	11,455
1990	295,219	144,668	150,551	212,506	104,136	108,370
1995	1,130,983	738,330	392,653	785,762	512,962	272,800
2000	1,430,218	955,873	474,345	955,070	638,310	316,760
2005	2,434,372	1,606,076	828,296	1,635,120	1,078,770	556,350
2010	3,347,855	2,037,542	1,310,314	2,160,565	1,314,944	845,621
2012	3,953,114	2,509,586	1,443,528	2,524,938	1,602,926	922,012
2013	4,353,333	2,921,821	1,431,512	2,768,007	1,857,800	910,207
2014	5,323,492	3,639,323	1,684,169	3,371,576	2,304,926	1,066,650
2015	5,220,648	3,335,655	1,884,993	3,296,234	2,105,907	1,190,327

자료 : 세정과, 충북통계연보, 2015년 자료(국세청 국세통계, 지방세징수월보)

재정자립도

1980년

46 %

2000년

37 %

2015년

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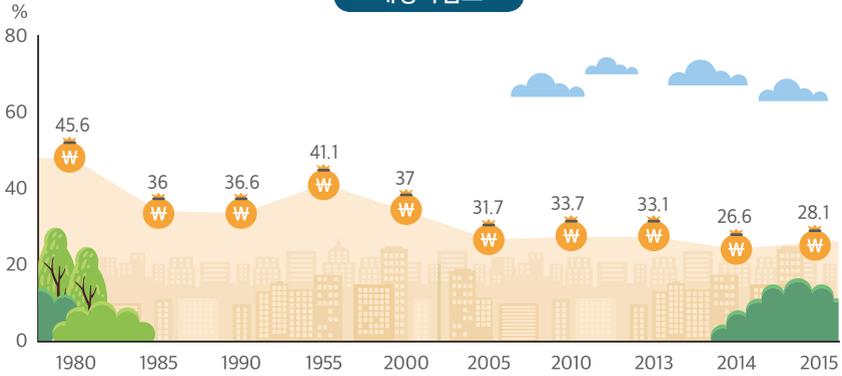


충북의 살림살이, 살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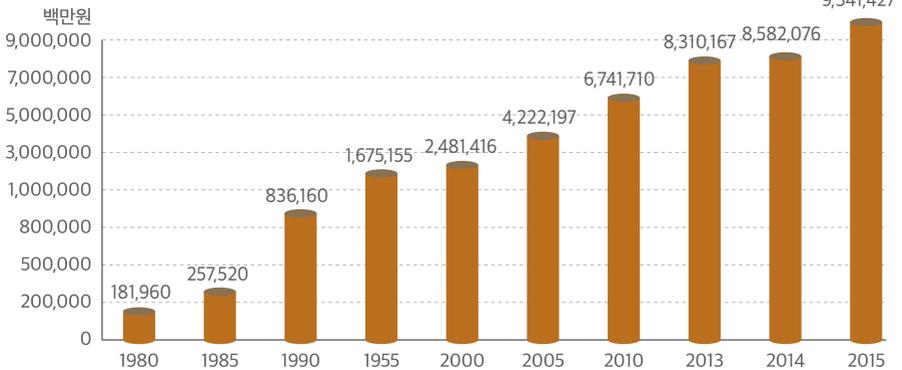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예산이 급증하는 것과 반비례하여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72%(1980), 59%(2000), 45%(2015)로 나타났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46%(1980), 37%(2000), 28%(2015)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권을 제외한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만성화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강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재정자립도



일반회계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일반회계예산규모 (도·시·군)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도·시·군
1980	181,960	71.9	45.6
1985	257,520	63.1	36
1990	836,160	55.6	36.6
1995	1,675,155	55.7	41.1
2000	2,481,416	59.4	37
2005	4,222,197	56.2	31.7
2010	6,741,710	52.2	33.7
2013	8,310,167	51.1	33.1
2014	8,582,076	44.8	26.6
2015	9,341,427	45.1	28.1

자료 : 예산담당관(충북예산개요, 최종예산 기준)

청주

일등경제 으뜸청주

◦ 상당산성

천년고도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상당산성

멀리서 보아도 상당산이 머리에 띠를 두른 듯 또렷하게 보이는 성벽은 위기 때마다 청주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준 과수꾼이다.

상당산 능성 따라 이어진 성벽은 산을 돌아가며 둘레 4.2km, 높이 4~5m의 성곽이다. 임진왜란 때에 일부 고쳤으며 숙종 42년(1716)에 네모나게 다듬은 화강암으로 석성을 쌓았다. 성 안에는 5개의 연못과 3개의 사찰, 관청건물, 창고 등이 있었다. 현재 상당산성에는 공남문(남문)과 미호문(서문), 진동문(동문) 3개의 문과 2개의 암문, 치성 3곳과 수구 3개소가 있다. 조선군이 혼란하던 동장대는 1992년에 복원해 옛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성을 한바퀴 돌고 내려오면 성안에는 전통한옥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전통마을에서 맛보는 전통주와 빈대떡은 산성을 돌고난 고단함을 풀어준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하여 언제든지 해설을 들을 수가 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 70(산성동) ☎ 043-201-0202



◦ 청남대

역사의 숨결이 깃든 대통령별장 청남대로 오세요.

청남대는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는 뜻이다. 1980년 대 전두환 대통령을 시작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대통령의 휴가와 정국구상의 무대가 되었으며 수려한 경관과 맑은 공기를 자랑한다. 2003년 비로소 베일을 벗고 사람들에게 열린 청남대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고 그 속에 역대 대통령들의 숨은 이야기가 남아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길 646 ☎ 043-257-5080



● 용두사지철당간

유형문화재 국보 제41호 1962.12.20 지정

청주에서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로 두개의 화강암 지주와 20개의 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간의 밑에서 3번째단에 당기(幢記)가 양각되어 있어 그 조성년도(고려 광종 13년, 962)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당시 '준풍(峻豊)'이라는 고려 목자의 연호를 널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알려주는 귀중한 유물이다.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48-19

● 직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는 우리 청주에 소재했던 흥덕사에서 1377년 간행되었으며, 독일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구텐베르트 성서보다도 78년이나 앞서 간행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직지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있습니다.



● 청원생명축제

2008년부터 친환경을 테마로 구성된 대표적인 축제

순수자연으로 더욱 빛나는 명품농산물인 청원생명브랜드를 홍보하고, 테마가 있는 전시와 다양한 체험행사 및 문화 공연을 통해 관람객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농업의 현재와 미래,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미래지로99 미래지농촌테마공원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고대 철기문화의 발흥지이자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의 탄생지인 천년고도 청주에서 공예예술의 정수를 한곳에 모아 전시한 '99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도자, 목칠, 섬유, 금속 등 공예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국제 종합 예술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국내·외 공예를 한자리에 모아 2년에 한 번 비엔날레를 개최함으로써 공예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공예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축제로 세계 최대 규모·최고 수준의 공예비엔날레로 성장하였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옛 청주연초제조창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인구



28

인구추이

인구감소 추세에도 충북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30

인구동태

출생률, 혼인율 저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시급

32

인구이동

좋은 일자리를 가진 매력도, 충북!

인구추이

1963년 **148**만명

1990년 **139**만명

2015년 현재 **161**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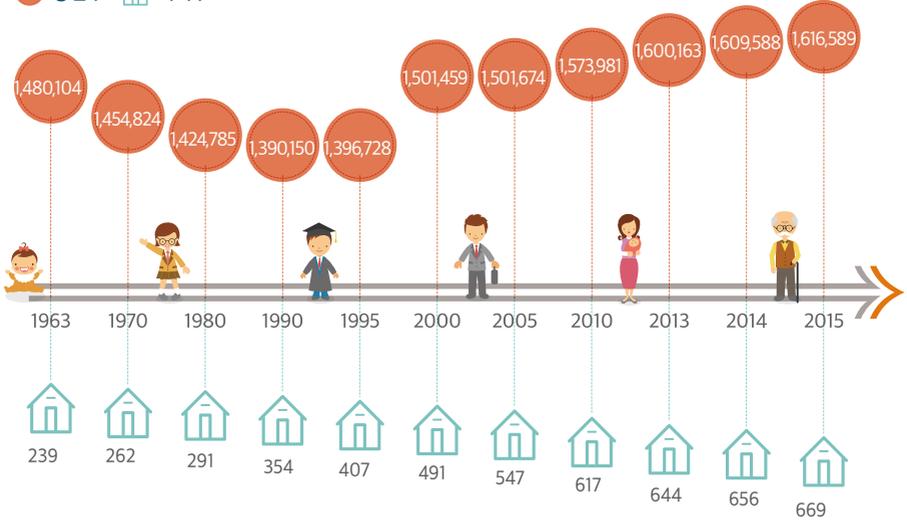
인구감소 추세에도 충북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어요

충북의 인구는 1963년 148만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 감소세를 기록해 1990년에는 139만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회복세를 기록해 2015년 현재 16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충북의 인구증가는 반도체, 태양광, 바이오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결과로 판단되며,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러한 정책의 추진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핵가족화, 1인 가구 비중 등의 증가로 충북의 인구수 증가보다 더욱 빠르게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 유입(특히, 음성, 진천 등) 등에 따라 등록 외국인 수의 증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총인구 🏠 세대수



총인구는 1,48만 104명에서 161만 6,589명으로
세대수는 23만 9,624 세대에서 66만 9,503 세대로 증가



단위 : 세대/명

구분	세대수 (외국인 제외)	인구(외국인 포함)			성 비 (남/여)	인구밀도 (명/㎢)	세대당 인구	65세이상 고령인구	등록 외국인수
		계	남	여					
1963	239,624	1,480,104	748,748	731,356	102.4	199	6.2	...	1,003
1970	262,183	1,454,824	726,994	727,830	99.9	196	5.5	57,275	925
1980	291,050	1,424,785	725,079	699,706	103.6	192	4.9	75,068	702
1990	354,193	1,390,150	697,308	692,842	100.6	187	3.9	98,907	464
1995	407,664	1,396,728	700,118	696,610	100.5	188	3.4	113,792	1,268
2000	491,781	1,501,459	755,028	746,431	101.2	202	3.1	140,071	3,946
2005	547,213	1,501,674	757,848	743,826	101.9	202	2.7	168,670	12,871
2010	617,431	1,573,981	796,002	777,979	102.3	212	2.5	204,462	24,453
2013	644,062	1,600,163	809,434	790,729	102.4	216	2.5	222,188	27,431
2014	656,321	1,609,588	815,090	794,498	102.6	217	2.5	228,900	30,655
2015	669,503	1,616,589	819,031	797,558	102.7	218	2.4	234,813	32,637

자료 : 주민등록인구통계, 충북통계연보

※ 인구 = (내국인 + 외국인), 인구밀도 = 인구/면적, 세대당인구 = 인구/세대수, 세대수 및 65세이상 고령인구 = 외국인 제외

1일 **37**명이 출생
29명이 사망
24쌍이 결혼
10쌍이 이혼

부부가 된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충정북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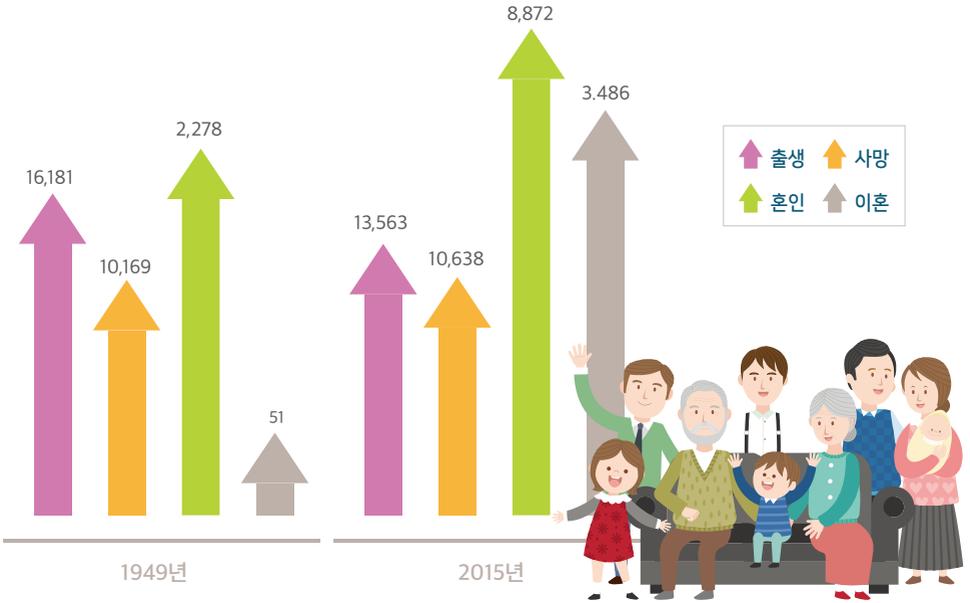


출생률, 혼인율 저하...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시급

충북에서는 1일 37명의 아기가 탄생하고 29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결혼하는 부부는 24쌍 이혼은 10쌍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률은 전체적인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망률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증가추세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최근 학령인구 급감추세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혼율은 1990년대 이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이혼율 급증세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위 : 명/건

구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연간	1일	연간	1일	연간	1일	연간	1일
1949	16,181	44	10,169	28	2,278	6	51	0.1
1960	29,516	81	8,517	23	3,706	10	215	1
1970	49,991	137	12,801	35	13,096	36	857	2
1980	30,859	85	13,796	38	15,929	44	555	2
1990	17,510	48	10,830	30	12,114	33	1,086	3
1995	20,674	57	10,208	28	11,861	32	1,870	5
2000	19,471	53	10,272	28	9,586	26	3,348	9
2005	13,075	36	9,661	26	8,390	23	3,469	10
2010	14,670	40	9,825	27	9,171	25	3,554	10
2013	13,658	37	10,371	28	9,307	25	3,732	10
2014	13,366	37	10,174	28	8,774	24	3,671	10
2015	13,563	37	10,638	29	8,872	24	3,486	1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인구이동

1970년

100,041명 전입

147,916명 전출

2015년

214,626명 전입

213,188명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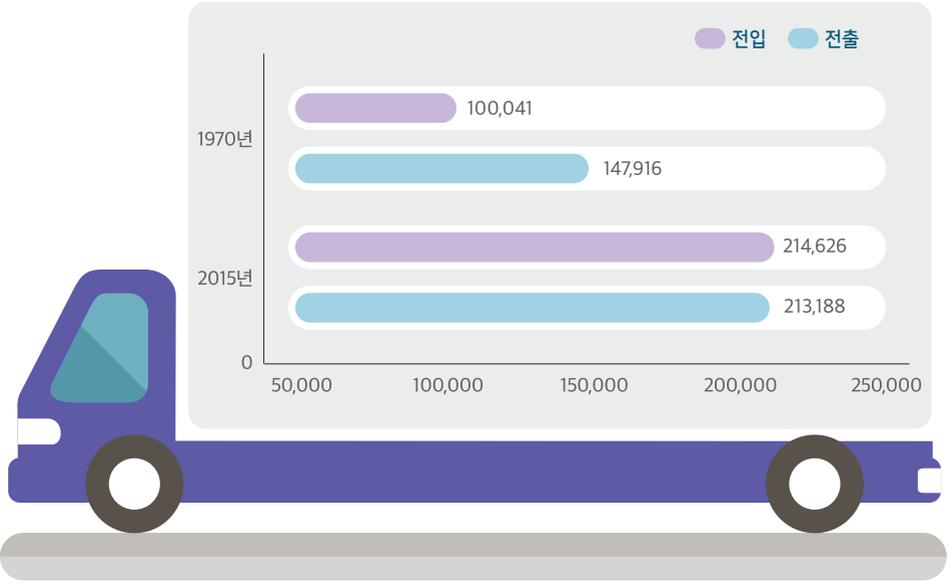
좋은 일자리를 가진
매력도, 충분!



충북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전출입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출입인구는 1980년 이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도내 이동은 역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산촌 인구감소가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시도간 전출입과 관련하여 충북의 인구감소시기인 1980년대는 수도권과 대경권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심의 일자리가 많이 형성됨에 따라 최근에는 역으로 도내로의 전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단위 : 명

구분	총이동				도내이동		시도간				순이동	
	전입		전출				전입		전출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1970	100,041	45,628	147,916	67,352	-	-	-	-	-	-	-47,875	-21,724
1980	227,621	109,935	266,206	132,344	141,794	71,730	85,827	38,205	124,412	60,614	-38,585	-22,409
1990	263,415	130,989	280,994	139,313	178,769	90,075	84,646	40,914	102,225	49,238	-17,579	-8,324
1995	249,033	125,122	245,262	123,544	171,036	86,228	77,997	38,894	74,226	37,316	3,771	1,578
2000	235,155	119,210	239,559	121,619	156,984	80,169	78,171	39,041	82,575	41,450	-4,404	-2,409
2005	235,907	118,119	240,615	121,568	157,381	79,511	78,526	38,608	83,234	42,057	-4,708	-3,449
2010	235,671	116,657	229,707	114,180	153,067	77,043	82,604	39,614	76,640	37,137	5,964	2,477
2013	215,973	106,386	212,860	105,274	139,959	70,308	76,014	36,078	72,901	34,966	3,113	1,112
2014	215,944	104,797	213,577	104,471	136,614	67,641	79,330	37,156	76,963	36,830	2,367	326
2015	214,626	104,009	213,188	104,103	133,264	66,055	81,362	37,954	79,924	38,048	1,438	-94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충주

충주번영과 시민행복



● 충주호

멈춰 쉬고 싶은 곳

충주의 풍경을 바꾼 거대한 인공 호수가 있다. 지금은 충주를 대표하는 풍경 명소지만, 처음에는 충주 사람들에게도 낯설었던 충주호다. 이 호수를 즐기는 세 가지 방법은 충주댐물문화관과 전망대, 댐 정상길 등 돌아보기, 충주호반 길과 충주호 옆 산길을 천천히 드라이브하기, 유람선을 타고 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치 즐기기다.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1 ☎ 043-850-6732



● 종댕이길

충주호가 안내하는
행복한 둘레길

나무와 햇살, 물과 바람이 어우러진 길, 충주호를 어루만지며 걷는 종댕이길이다. 산허리를 휘감으며 이어지는 길이 순하고 부드러워 이끌리듯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날개라도 단 듯 가벼워진다. 종댕이산이라 불리는 심항산을 한 바퀴 빙 돌아 걷는 행복한 둘레길이다.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1170 ☎ 043-842-0531



● 수주팔봉

달천에 떠오른 8개 봉우리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다. 여덟 개 봉우리가 비치는 물가에 발을 담그고 신선처럼 노니는 꿈이다. 과연 그런 곳이 있을까? 왕은 친히 수주팔봉을 찾아 궁궐을 나섰다. 충주의 젓줄인 달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왕의 꿈에 나타난 비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 043-850-2313

● 수안보온천

53℃ 물안비와 뜨거운 사랑에 빠지다!

지난 수백 년간 수안보온천의 명성을 지켜온 온천수는 맑고 뜨겁고 순수하다. 특유의 냄새나 색이 없이 깨끗한 온천수는 살아 있는 생명의 물이다. 53℃ 뜨거운 열정으로 병들고 고단한 사람들의 피로와 아픔을 쓰다듬고, 긴 세월 끊임없이 솟구친 수안보온천의 생명력은 충주 사람의 삶처럼 강인하고 아름답다.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47 현대리조트
☎ 043-846-3605



● 충주세계무술축제

세계무술과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전통무술인 '태권'의 세계화를 위해 1998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세계무술연무대회, 박진감 넘치는 무술대회, 다채로운 문화 공연 등 무술과 문화가 만나는 국내 유일의 UNESCO 후원 축제이다.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 043-850-6720~4



● 충주호수축제

중부내륙 대표 여름축제로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드래곤 보트, 워터파크, 물축구 대회 등 수상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다.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50 ☎ 043-850-6722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농업축산임업



- 38** **농가 및 농가인구**
농가 및 농가인구 감소, 최근 은퇴영농 확대로 회복세
- 40** **경지면적**
경지면적 감소와 논농사 급감세
- 42** **식량작물 생산**
식량작물 경작면적은 급감, 미곡과 잡곡 생산은 늘어
- 44** **채소류 생산량**
충북의 대표 채소는 "배추, 수박, 토마토"
- 46** **과실류 생산**
충북의 대표 과일은 "사과, 복숭아, 포도"
- 48** **가축사육**
충북은 유기농 축산으로 변신중이에요
- 50** **산림면적**
충북의 산림 보전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농가 및 농가인구

1960년 농가당 인구
6.3명에서
2015년 **2.4**명으로
위축

농가 및 농가인구 감소, 최근 은퇴영농 확대로 회복세

엄마, 아빠~ 우리 농가로 가요!
집들이 비용, 농가주택수리비, 경작지 임대료 등
귀농인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이
많아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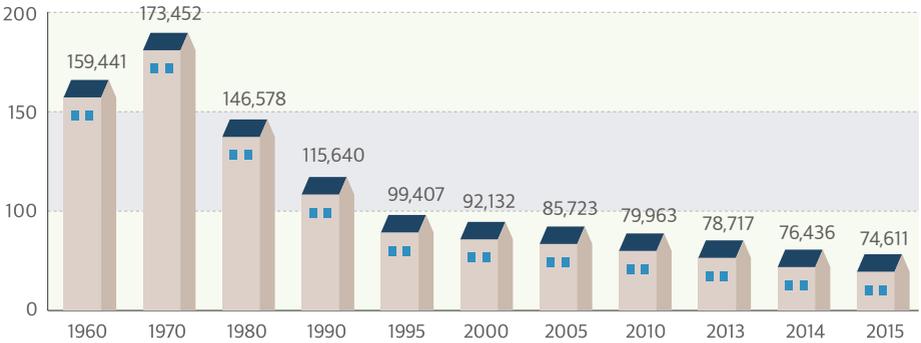
전형적인 농업도였던 충북이 1980년대 산업화가 급진전 되면서 농가 및 농가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 당시 인구의 72.9%에 달하던 농가인구는 2015년 11.0%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한편, 농가당 인구도 1960년대 6.3명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3.0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2015년 현재 2.4명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이는 이농향도(離農向都)가 지속된 결과이다.

최근들어 농가 및 농가인구의 위축세가 다소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대도시권과 근접해있고 청정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된 충북으로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농가 및 농가 인구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가수

천가구



농가당인구

1960년 당시 인구의 72.9%에 달하던
농가당인구는 2015년 11.0%까지 감소



1960년 >>>>> 2015년

단위 : 가구, 명

구분	농가수	농가인구				농가당인구
		계	남	여	인구대비(%)	
1960	159,441	998,380	494,371	504,009	72.9	6.3
1970	173,452	1,023,182	514,900	508,282	70.3	5.9
1980	146,578	744,158	379,475	364,683	52.2	5.1
1990	115,640	433,051	215,923	217,128	31.2	3.7
1995	99,407	326,467	162,098	164,369	23.4	3.3
2000	92,132	277,534	137,815	139,719	18.5	3.0
2005	85,723	238,610	118,516	120,094	15.9	2.8
2010	79,963	211,522	105,235	106,287	13.4	2.6
2013	78,717	197,410	97,460	99,950	12.3	2.5
2014	76,436	187,752	92,687	95,065	11.7	2.4
2015	74,611	178,248	89,330	88,918	11.0	2.4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지면적

1975년 대비 2015년
총 경지면적
176,432ha에서
111,568ha로
감소



경지면적 감소와 논농사 급감세

충북의 경지면적은 산업화와 FTA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발, 농촌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속적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충북의 산업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감소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이후 경지면적 감소세는 다소 감소되고 있으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지면적 비중은 논이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 밭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WTO 타결과 FTA 체결 등으로 농가의 주수입원이 되어 왔던 쌀 대신 고부가가치의 밭작물로 대체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지면적의 감소는
쌀 생산과 농작물 생산량을
감소시켜요~

단위 : ha

구분	경지면적					가구당 경지면적		
	계	논	구성비(%)	밭	구성비(%)	계	논	계
1975	176,432	79,414	45.0	97,018	55.0	1.09	0.49	0.60
1980	171,987	84,455	49.1	87,532	50.9	1.17	0.58	0.60
1990	152,655	82,138	53.8	70,517	46.2	1.32	0.71	0.61
1995	143,400	70,544	49.2	72,856	50.8	1.44	0.71	0.73
2000	134,587	64,905	48.2	69,682	51.8	1.46	0.70	0.76
2005	128,162	60,916	47.5	67,246	52.5	1.50	0.71	0.78
2010	116,973	50,999	43.6	65,974	56.4	1.46	0.64	0.83
2013	114,530	48,062	42.0	66,468	58.0	1.45	0.61	0.84
2014	112,097	45,164	40.3	66,933	59.7	1.47	0.59	0.88
2015	111,568	44,541	39.9	67,027	60.1	1.50	0.60	0.90

자료 :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식량작물 생산량



경지면적은 1962년 대비
27.4% 수준으로 감소,
생산량은 **70.3%**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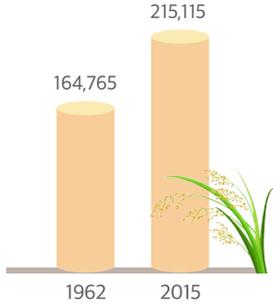


식량작물 경작면적은 급감,
미곡과 잡곡 생산은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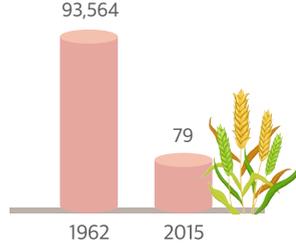
2015년 현재 총복의 식량작물 경지면적은 1962년 대비 27.4%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70.3%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 작목별로 편차가 크지만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영농과학화와 기계화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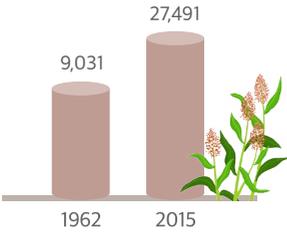
미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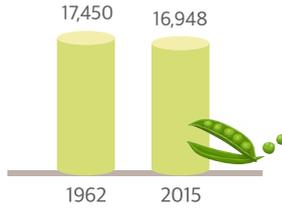
맥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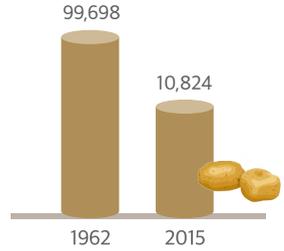
잡곡



두류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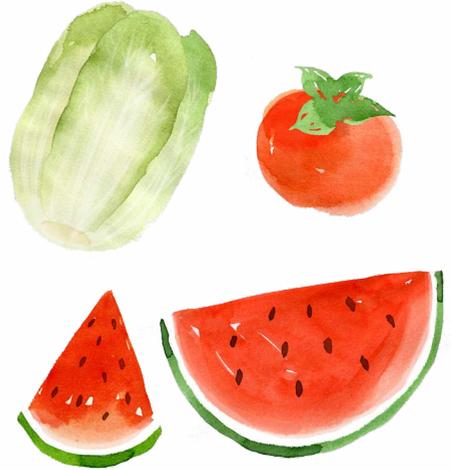


단위 : ha, 톤

구분	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62	205,821	384,508	65,443	164,765	79,807	93,564	19,388	9,031	31,916	17,450	9,267	99,698
1971	166,489	401,795	73,987	250,899	38,691	76,955	8,757	8,696	35,462	31,914	9,592	33,331
1980	117,229	251,710	77,724	187,501	6,796	13,936	4,813	12,242	24,286	26,982	3,610	11,050
1990	100,387	377,083	75,722	326,327	502	1,275	4,464	18,157	18,910	28,296	789	3,208
1995	77,755	319,482	60,147	269,449	88	228	4,004	14,484	12,576	17,652	940	17,669
2000	77,996	354,876	60,040	313,527	192	411	4,173	14,087	11,433	16,041	2,158	10,810
2005	73,772	316,878	53,488	260,725	236	665	4,614	19,810	12,869	21,045	2,565	14,633
2010	65,986	277,962	46,826	223,622	88	226	4,457	23,064	11,490	16,354	3,125	14,696
2013	63,763	297,287	42,893	220,383	66	134	5,005	31,239	12,052	26,134	3,747	19,397
2014	60,381	285,695	40,653	215,456	84	191	4,991	30,854	11,634	24,594	3,019	14,600
2015	56,377	270,457	39,786	215,115	42	79	5,410	27,491	8,811	16,948	2,328	10,824

자료 :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충북통계연보

배추 **153,675**톤,
수박 **68,185**톤,
토마토 **15,263**톤



충북의 대표 채소는 "배추, 수박, 토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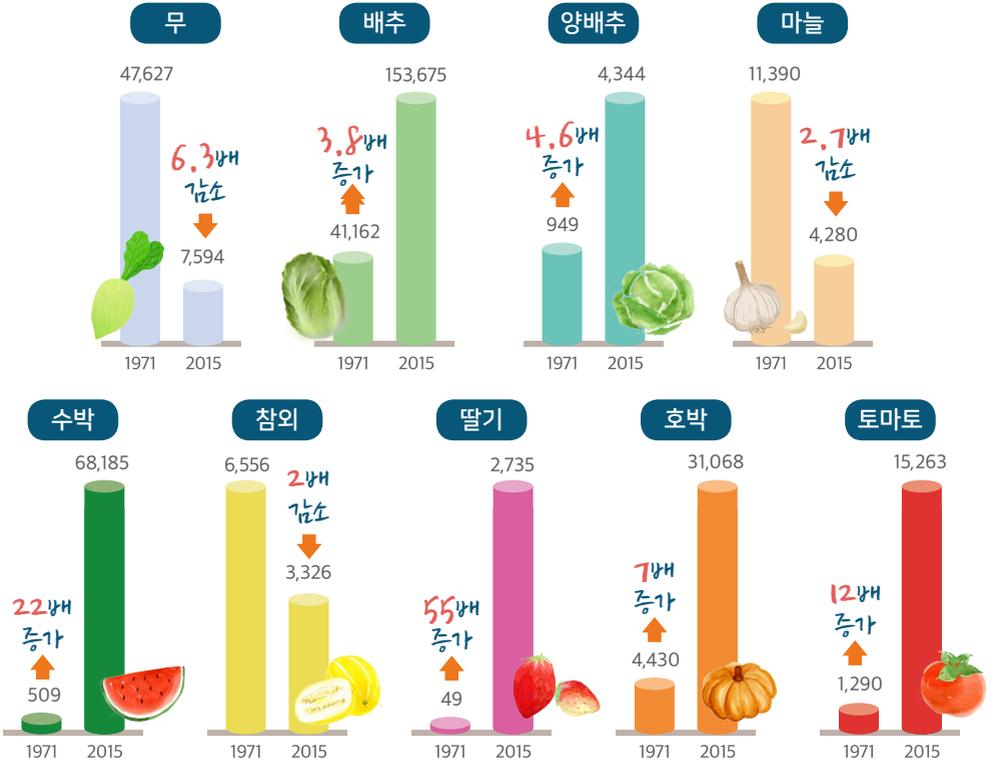
충북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표적인 채소류는 식습관 변화 등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채소류는 배추(153,675톤), 수박(68,185톤), 토마토(15,263톤) 등으로 나타났다.

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채소류 재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의 재배면적은 1971년과 비교해 6.3배 감소한데 비해 수박은 22배, 토마토 12배, 호박 7배, 양배추 4.6배, 배추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의 경우 고랭지 채소로서의 수요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고(단양), 수박, 호박, 토마토와 양배추 재배량의 증가는 소비자 기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과 멥동 수박(음성), 어상천 수박(단양) 등 특화브랜드 이미지 정립이 강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수박, 토마토는 과일로 생각하기 쉬우나 채소류로 분류



단위: 톤

구분	무	배추	양배추	마늘	수박	참외	딸기	호박	토마토
1971	47,627	41,162	949	11,390	3,145	6,556	49	4,430	1,290
1980	139,639	233,253	3,082	22,148	10,662	8,713	2,849	1,477	884
1990	75,894	184,946	4,230	15,442	22,969	3,395	1,920	7,850	1,798
1995	46,572	174,816	9,787	10,033	59,462	4,354	3,583	8,158	6,407
2000	107,877	269,745	16,357	6,802	60,562	1,350	1,268	15,027	13,715
2005	72,323	168,110	10,730	4,402	82,219	289	2,496	18,979	22,100
2010	46,712	145,546	12,677	5,079	75,880	110	1,115	27,848	12,419
2013	47,119	197,360	9,532	5,641	66,041	99	3,315	25,667	7,153
2014	35,762	195,391	8,664	4,349	73,625	50	3,841	25,379	17,228
2015	7,594	153,675	4,344	4,280	68,185	3,326	2,735	31,068	15,263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충북통계연보

재배면적은 1962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

복숭아 생산량 **73**배
포도 생산량 **143**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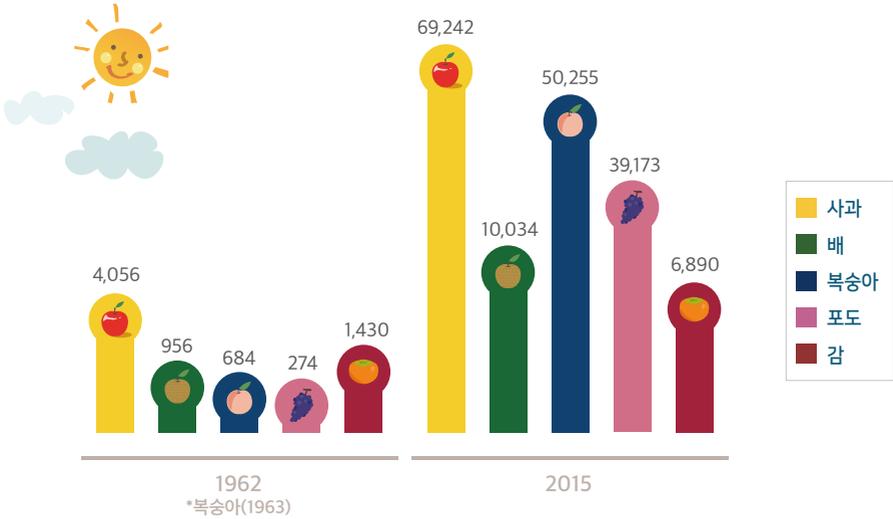
2015. 11. 18
충북 과일 '맛·품질' 우수성 인정받다

충북 과일, 201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최우수상 및 전국 37점중 10점(27%)을 입상하며
충북 과일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충북의 대표 과일은 "사과, 복숭아, 포도"

충북에서 재배되는 과실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사과이고, 다음으로 복숭아, 포도, 배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가 시작된 1962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재배면적이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복숭아와 포도로 복숭아는 재배면적이 37배, 생산량이 73배 증가하였고, 포도는 생산면적이 35배, 생산량은 1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과는 재배면적 6배 생산량 17배, 배는 재배면적 4배, 생산량 10배, 감은 재배면적 4배, 생산량 5배로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ha, 톤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62	638	4,056	119	956	113*	684*	69	274	185	1,430
1971	2,469	12,295	295	2,146	523	3,688	405	1,700	183	837
1980	7,616	67,247	525	4,142	760	6,664	729	4,314	205	1,494
1990	4,977	53,230	288	2,968	1,184	11,840	2,008	15,944	97	738
1995	5,219	80,472	856	3,680	1,082	13,460	4,881	51,592	147	2,123
2000	3,420	59,390	2,175	17,795	2,284	21,264	4,543	81,047	510	6,039
2005	3,784	46,964	1,401	26,684	3,291	50,352	3,212	56,178	897	8,411
2010	4,252	64,973	712	17,439	3,826	33,554	2,750	46,695	1,584	9,389
2013	3,867	63,177	531	11,803	3,709	39,315	2,732	36,745	1,143	5,738
2014	3,877	56,667	526	11,647	3,775	40,846	2,596	42,522	970	4,715
2015	3,984	69,242	502	10,034	4,174	50,255	2,393	39,173	898	6,890

자료 :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충북통계연보

* 복숭아: 1963년

가축사육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닭은 **1127**만 마리
오리는 **192**만 마리



과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유기농이 단순한 농업기술이 아닌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고자하는
공존의 철학이 담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형태라는 것에 대한 실제 체험의 기회와
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충북은
유기농 축산으로
변신중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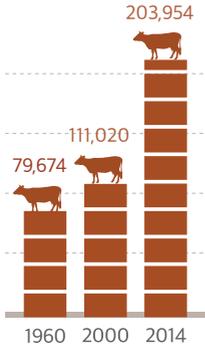


2014년 기준으로 충북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가축은 닭(1127만), 오리(192만) 순으로 나타났으며, 말은 410마리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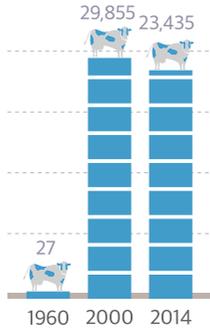
1960년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가축은 젓소로 무려 87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리가 250배, 닭 21배, 꿀벌 20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충북에서 사육되는 가축은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약간씩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등과의 FTA로 인한 우려, 인건비 증가 등과 함께 양적 성장 보다는 유기농 등의 고부가가치 방향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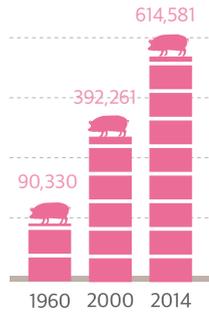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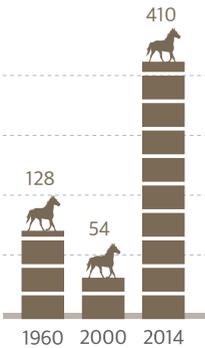
젖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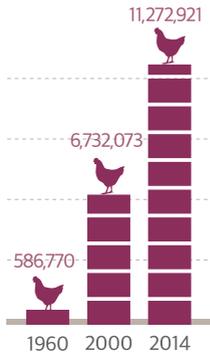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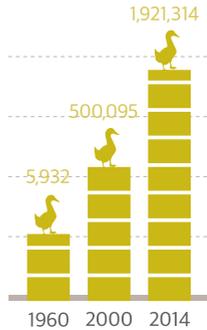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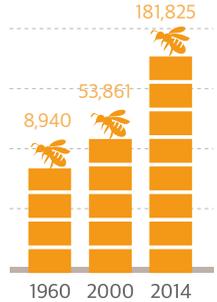
닭



오리



꿀벌



구분	한육우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꿀벌
	마리수	마리수	마리수	마리수	마리수	마리수	군수
1960	79,674	27	90,330	128	586,770	5,932	8,940
1970	107,866	899	57,635	89*	823,100	6,147*	5,825
1980	110,282	5593	70,006	20	1,038,274	6,940	15,772
1990	111,703	22,124	186,389	17	3,041,583	102,250	36,678
1995	175,334	27,150	297,047	55	4,862,368	153,992	53,861
2000	111,020	29,855	392,261	54	6,732,073	500,095	108,696
2005	134,285	25,221	513,432	125	7,516,105	992,641	177,507
2010	203,211	22,054	574,050	237	10,662,041	1,581,626	168,501
2013	206,792	23,106	635,765	325	11,562,683	2,051,699	182,627
2014	203,954	23,435	614,581	410	11,272,921	1,921,314	181,825

자료 : 통계청 가축동향조사(1990 ~ 2014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충북통계연보
* 말, 오리 : 1971년

산림면적

소유별 산림면적은
495,806ha,
임상별 임목축적은
5,989만 m³

충북의 산림 보전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21세기는 숲에 희망이 있다.
맑은 공기와 향기를 느끼며
자연과 하나되는 행복!



충북의 산림면적은 산업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유별로는 공유림은 약간 증가(103.9%)한데 비해 국유림은 약간 감소(99.8%)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유림의 감소추세가 가장 높아 1960년 대비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상별 임목축적은 1970년에 비해 2010년에는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엽수는 8.78배, 활엽수 15배, 혼효림 8.9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산림 보전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선택적 간벌과 함께 고품질 경제수목으로 품종 전환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소유별 산림면적

■ 국유림 ■ 공유림 ■ 사유림



임상별 임목축적

■ 침엽수 ■ 활엽수 ■ 혼효림



우리 충북의 산림은 그 면적의 67%를 차지하는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



소유별 산림면적

단위 : ha

구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1960	535,425	88,879	79,172	367,374
1970	530,259	68,678	82,851	378,730
1980	511,571	67,650	83,031	360,890
1990	504,522	68,953	81,878	353,691
1995	502,446	70,693	82,406	349,347
2000	500,157	74,272	82,371	343,514
2005	497,773	81,483	82,293	333,997
2010	495,806	88,701	82,257	324,848

임상별 임목축적

단위 : m

구분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1970	5,890,919	2,618,194	1,214,997	2,057,728
1980	12,027,187	4,853,384	2,306,957	4,866,846
1990	18,882,351	7,917,582	3,464,402	7,500,367
1995	21,502,936	8,041,230	6,871,146	6,590,560
2000	26,933,567	10,152,076	8,513,846	8,267,645
2005	36,572,865	17,492,523	9,385,431	9,694,911
2010	59,895,608	22,958,202	18,618,291	18,319,115

자료 : 충북통계연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제천

자연치유도시



◉ 의림지

삼한시대의 유물

제천10경 중 제1경인 의림지는 삼한시대에 축조된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저수지로 본래 '임지'라 하였다. 고려성종 11년(992)에 군현의 명칭을 개정할 때 제천을 '의원현' 또는 '의천'이라 하였는데 그 첫 글자인 '의'자를 붙여 의림지라 부르게 되었다.

축조된 명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구전에는 신라 진흥왕(540~575) 때 악성 우륵이 용두산(871m)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물을 막아 둑을 만든 것이 이 못의 시초라 한다.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지로 33 ☎ 043-651-7101



◉ 박달재

박달도령과 금봉낭자의 사연이 있는 곳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대중가요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고갯길로 박달 도령과 금봉 낭자의 애달픈 사랑으로 인해 박달재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며, 사랑의 테마 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 있으며, 최근 성각 스님이 공력을 들여 조각한 목굴암과 오백나한상의 전시관이 생겨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705

☎ 043-642-9398



● 월악산

청풍명월의 영원한 연인

국립공원 월악산은 뛰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계곡의 정취를 간직한 곳이 많아 제2의 금강산 또는 동양의 알프스라 불리며 덕주사 마애여래입상을 비롯한 문화유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사계절 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

🏠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덕산면 월악리, 수산리
☎ 043-653-3250



● 청풍문화재단지

호수위의 작은 민속촌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 청풍은 선사시대 문화의 중심지로서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삼국시대에는 고구려화 신라의 세력 쟁탈지로 찬란한 웅원문화를 이루었던 곳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지방의 중심지로 수운을 이용한 상업과 문물이 크게 발달했다. 그러나 1978년부터 시작된 충주다목적댐 건설로 제천시 청풍면을 중심으로 한 5개면 61개 마을이 수몰되자, 이곳에 있던 각종 문화재들을 한 곳에 모아 문화재단지를 조성했다.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 ☎ 043-647-7003



● 청풍호 벚꽃축제

호반위에 펼쳐진 하얀 아우성

하얀 벚꽃과 색색의 봄꽃들이 만발한 청풍명월의 분향! 물 맑고 공기 좋은 산자수려한 청풍호반에서 즐기는 벚꽃 축제! 해마다 4월이면 청풍호는 하얀 벚꽃이 눈처럼 휘날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 지역 농·특산품전시판매, 먹거리 장터, 공연, 체험, 경연, 전시, 기타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048(청풍면)
☎ 043-641-4870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지역경제



- 56**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일자리 많은 충북을 만들어요!
- 58** **산업별 취업자**
충북의 일자리, 2차산업 비중이 작고 3차산업 비중이 높아
- 60** **연령별 취업자**
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 62**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경제 규모변화를 보여주는 GRDP
- 64** **사업체 현황**
사업체수는 전체적으로 증가, 도소매업은 감소
- 66** **광업, 제조업체 현황**
광업, 제조업체는 꾸준히 증가
- 68** **석유류 소비량**
주로 자동차, 난방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 70** **소비자 물가지수**
술, 담배 가격은 오르고 통신비는 줄고
- 72** **무역수지**
수출 150억 달러 무역수지 연속 흑자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63.9%

실업률

2.6%

안정기조 유지

일자리 많은
충북을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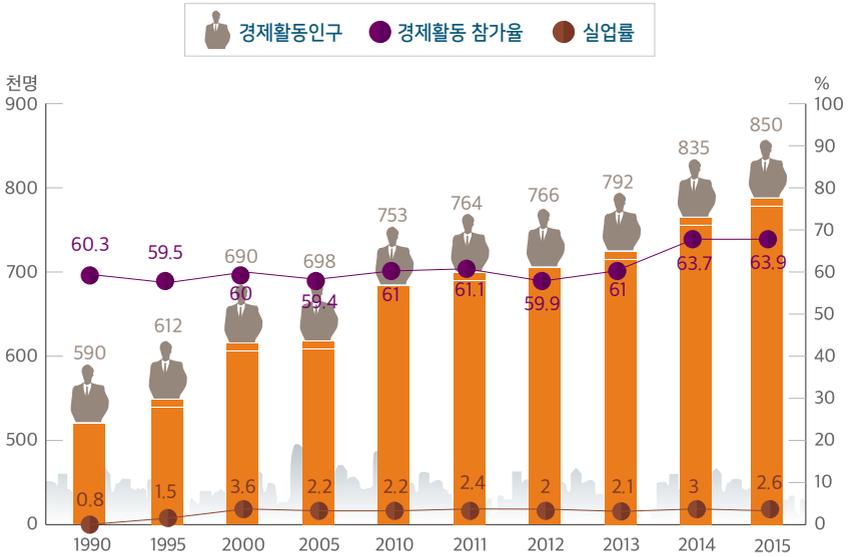
충북의 15세 이상 인구는 133만1천명으로 1990년에 비해 3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인구도 59만명에서 828천명으로 4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3.9%(전국 63.5%)이고, 실업률은 2.6%(전국 3.5%)로 전국 평균(2016년 7월 기준)에 비해 비교적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북의 인구 증가에 비해 경제활동인구가 높은 것은 충북에 일자리 증가로 인해 인구 유입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청년 실업문제 등 일자리 문제가 사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실업률 감소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유도 등의 정책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충북에서는 희망더하기 취업특강이나 5060세대 취업지원컨설팅과 같은 구직자 취업지원과 충청북도 취업박람회, 으뜸인재 채용대행서비스와 같은 구인기업 채용지원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과 청년일자리지원사업, 그리고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과 네트워크 활성화로 일자리 취업 지원을 맞춤형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청년 실업', '취업난' 등 일자리 문제가 사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고용시장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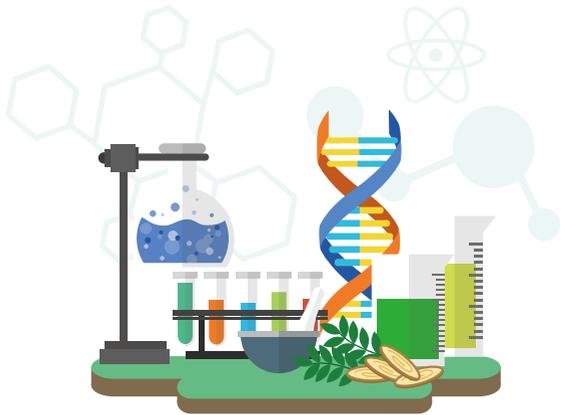
단위 : 천명, %

구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비경제 활동인구	실업률
		계	취업자	실업자			
1990	978	590	585	5	60.3	388	0.8
1995	1,028	612	603	9	59.5	416	1.5
2000	1,150	690	665	25	60	460	3.6
2005	1,175	698	682	16	59.4	477	2.2
2010	1,236	753	737	16	61	482	2.2
2011	1,250	764	746	18	61.1	487	2.4
2012	1,279	766	751	15	59.9	513	2
2013	1,298	792	776	16	61	506	2.1
2014	1,311	835	810	25	63.7	476	3
2015	1,331	850	828	22	63.9	481	2.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농림어업 **9**만명
광공업 **17**만**4**천명
사업간접자본 및 기타
56만**4**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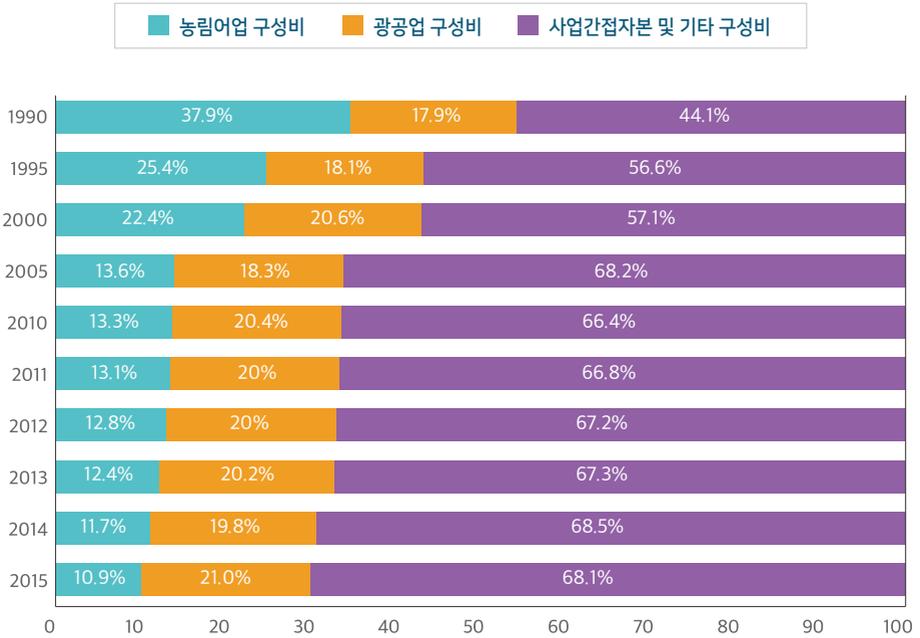
충북의 일자리,
2차산업 비중이 작고
3차산업 비중이 높아



충북의 산업별 취업자비중은 농림어업(9만명), 광공업(17만4천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56만4천명)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90년에는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의 비중이 각 37.9%, 17.9%, 44.1%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10.9%, 21.1%, 68.1%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충북의 산업구조가 1차산업(농림어업)의 비중은 대폭 감소한데 비해 2차 산업(제조업)과 3차산업(44.1%)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취업자 증가율은 1990에 비해 4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1차 산업은 59.5%가 감소한데 비해 2차산업은 65.7%, 3차산업은 11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산업구조가 10.0%, 43.9%, 46.1%(2013년 기준)으로 볼때 충북의 2차산업(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양질의 근로조건을 나타내는 2차산업 취업자 비중이 작은 대신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2차산업 일자리 비중을 증가시키는 형태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계	구성비	계	구성비	계	구성비
1990	585	222	37.9	105	17.9	258	44.1
1995	603	153	25.4	109	18.1	341	56.6
2000	665	149	22.4	137	20.6	380	57.1
2005	682	93	13.6	125	18.3	465	68.2
2010	737	98	13.3	150	20.4	489	66.4
2011	746	98	13.1	149	20	498	66.8
2012	751	96	12.8	150	20	505	67.2
2013	776	96	12.4	157	20.2	522	67.3
2014	810	95	11.7	160	19.8	555	68.5
2015	828	90	10.9	174	21.0	564	68.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취업자

50-64세 **30.8%**
40-49세 **24.6%**
30-39세 **19.8%**
15-29세 **15.1%**
65세이상 **9.7%**



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충북의 연령별 취업자는 50-64세(30.8%), 40-49세(24.6%), 30-39세(19.8%), 15-29세(15.1%), 65세 이상(9.7%)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과 비교시 취업자의 고령화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207.7%), 50-64세(65.6%), 40-49세(63.2%), 30-39세(71.9%)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15-29세(0.8%)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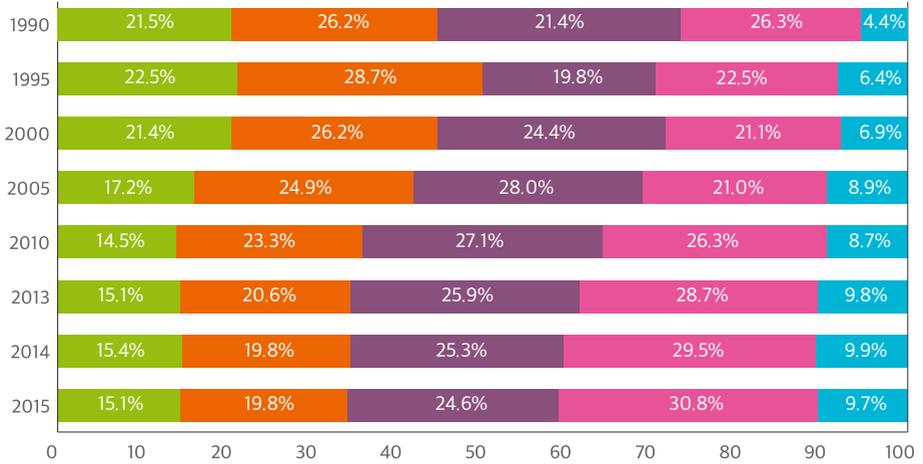
가장 좋은 노후대책이 일자리는 말이 있듯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고령층 일자리(행복한 일자리)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는 도내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5060세대 취업지원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시니어인터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좋은 노후대책은
일자리!

15-29세 구성비 30-39세 구성비 40-49세 구성비 50-64세 구성비 65세 구성비



단위 : 천명, %

구분	계		15-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이상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1990	585	100	126	21.5	153	26.2	125	21.4	154	26.3	26	4.4
1995	645	100	145	22.5	185	28.7	128	19.8	145	22.5	41	6.4
2000	665	100	142	21.4	174	26.2	162	24.4	140	21.1	46	6.9
2005	682	100	117	17.2	170	24.9	191	28.0	143	21.0	61	8.9
2010	737	100	107	14.5	172	23.3	200	27.1	194	26.3	64	8.7
2013	776	100	117	15.1	160	20.6	201	25.9	223	28.7	76	9.8
2014	810	100	125	15.4	160	19.8	205	25.3	239	29.5	80	9.9
2015	828	100	125	15.1	164	19.8	204	24.6	255	30.8	80	9.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충북통계연보

지역내총생산 (GRDP)

2014년 기준

충북 GRDP

49,7190억원

전국 대비 **3.4%**

지역경제 규모변화를 보여주는 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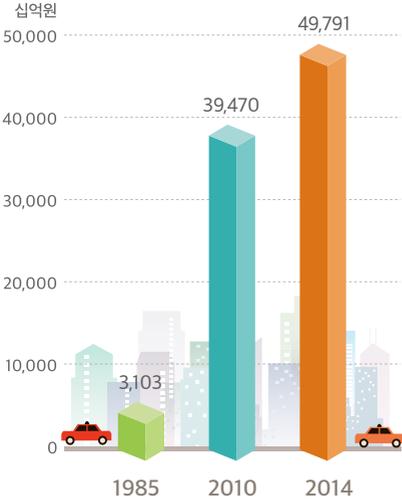
지역의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가 지역내총생산(GRDP)이다. 2014년 기준으로 충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49,7190억원으로 전국 대비 3.4%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5년에서 2014년의 기간동안 충북의 지역내총생산은 1,50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 충북의 1인당 총생산은 2,211천원으로 전국 2,21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국 대비 충북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2014년에는 전국 29,460천원에 비해 1,347천원 많은 31,807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장치는 같은 기간 전국 성장치 1,230.6%보다 높은 1,338.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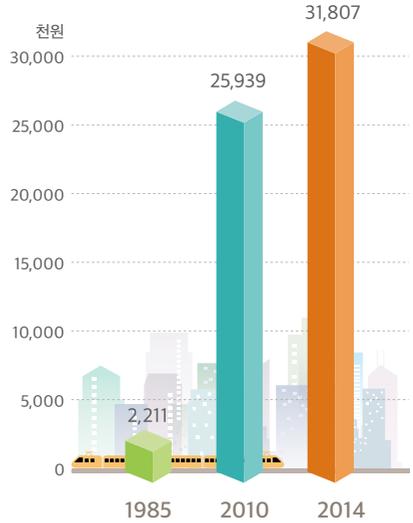
한편, 충북의 1인당 총생산액은 전국보다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북의 전국대비 지역내 총생산(GRDP)은 30년째 3.4%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이란 시·도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지역단위의 종합경제지표를 말해요.

도내총생산



1인당총생산



구분	도내총생산(십억원)		전국합계 (십억원)	1인당총생산(천원)	
	충북	전국대비(%)		충북	전국
1985	3,103	3.4	90,350	2,211	2,214
1990	6,079	3.0	201,737	4,425	4,706
1995	14,640	3.3	437,585	10,369	9,704
2000	20,343	3.2	638,030	13,613	13,573
2005	27,576	3.0	920,028	18,580	19,112
2010	39,470	3.1	1,265,146	25,939	25,605
2011	42,489	3.2	1,330,888	27,619	26,736
2012	43,628	3.2	1,377,041	28,146	27,538
2013	47,402	3.3	1,430,255	30,406	28,480
2014	49,791	3.4	1,485,505	31,807	29,460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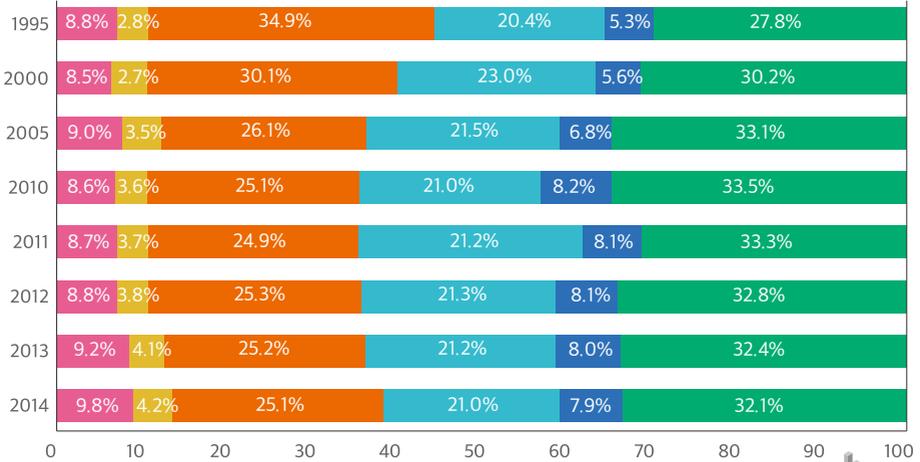
총 사업체 수
119,499개,
총 종사자 수
620,557명



사업체수는
전체적으로 증가,
도소매업은 감소

충북의 사업체 수는 119,499개, 종사자 수는 620,557명이며 남성(58.4%), 여성(41.6%)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광업제조업(9.8%), 건설업(4.2%), 도소매업(25.1%), 숙박음식업(21.0%), 교육.보건.사회복지업(7.9%) 기타(32.1%)로 나타났다.

2000년 기준으로 남녀 성비는 2000년 59.3% vs. 40.7%에서 2014년 58.4% vs. 41.6%로 여성의 비중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광업제조업 (8.8→9.8%), 건설업 (2.8→4.2%), 도소매업(34.9→25.1%), 숙박음식업(20.4→21.0%), 교육.보건.사회복지(5.3→7.9%), 기타(27.8→32.1%)로 각각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152.5%), 교육보건 사회복지 (148.1%), 광업 제조업(1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소매업은 2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총 사업체수 (개소)	총 종사자수 (명)	총 사업체수 산업별 구성비(%)					
			광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보건/ 사회복지업	기타
1995	84,876	393,854	8.8	2.8	34.9	20.4	5.3	27.8
2000	94,736	416,695	8.5	2.7	30.1	23.0	5.6	30.2
2005	97,142	450,265	9.0	3.5	26.1	21.5	6.8	33.1
2010	105,756	533,545	8.6	3.6	25.1	21.0	8.2	33.5
2011	109,256	551,917	8.7	3.7	24.9	21.2	8.1	33.3
2012	112,650	569,550	8.8	3.8	25.3	21.3	8.1	32.8
2013	115,611	591,509	9.2	4.1	25.2	21.2	8.0	32.4
2014	119,499	620,557	9.8	4.2	25.1	21.0	7.9	32.1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사업체 수 **2,838**개,
종사자 수 **150,256**명,
생산액 **66,405,715**백만원



광업 · 제조업체는 꾸준히 증가

충북의 광업, 제조업체는 사업체 수(2,838개), 종사자 수(150,256명), 생산액(66,405,715백만원), 부가가치(25,677,08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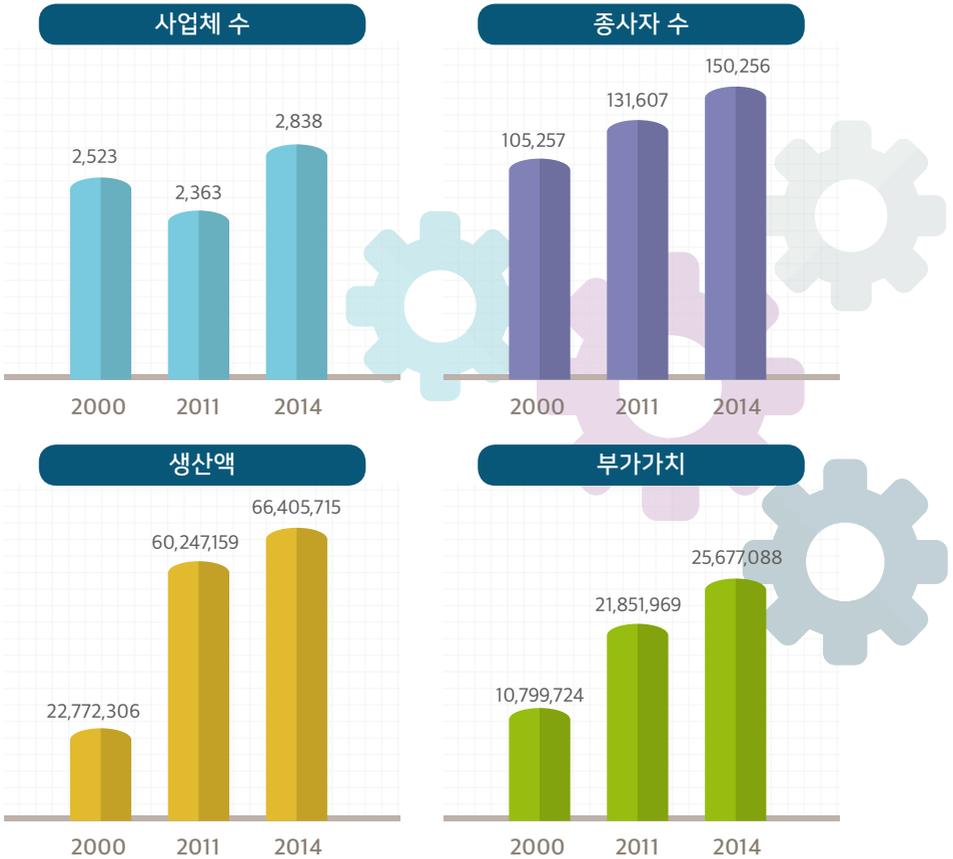
2000년과 비교해보면 사업체 수(12.5%), 종사자 수(42.8%), 생산액(191.6%), 부가가치(137.8%)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에 비해 종사자 수가 증가한 점은 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2배 이상 증가한 점도 고무적인데 지역의 광업 제조업체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생산액에 비해 부가가치액 증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측면에 대한 지속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사업체 수 12.5%, 종사자 수 42.8%
생산액 191.6%, 부가가치 137.8% 증가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액	부가가치
2000	2,523	105,257	22,772,306	10,799,724
2005	3,030	114,656	31,451,819	13,669,699
2011	2,363	131,607	60,247,159	21,851,969
2012	2,354	131,272	59,749,395	21,723,935
2013	2,616	139,025	63,437,396	23,767,513
2014	2,838	150,256	66,405,715	25,677,088

자료 : 통계청 「공업·제조업통계조사(10인이상)」
※ 2005년도 까지는 종사자가 5인이상, 2008년도 부터는 10인이상 자료임

석유류 소비량

경유 **7,448**천 배럴

휘발유 **2,928**천 배럴

등유 **1,055**천 배럴

벙커C유 **201**천 배럴

주로
자동차, 난방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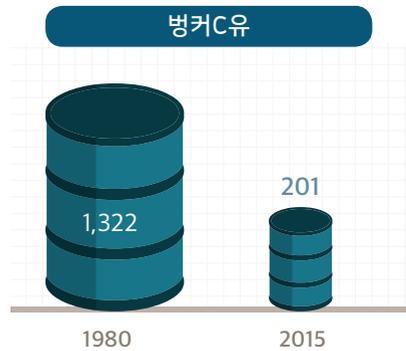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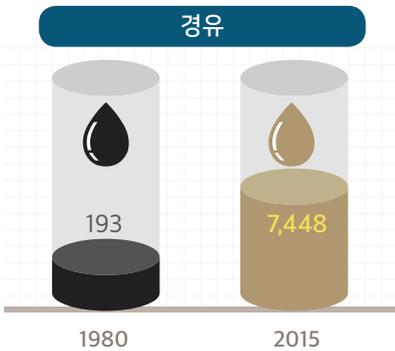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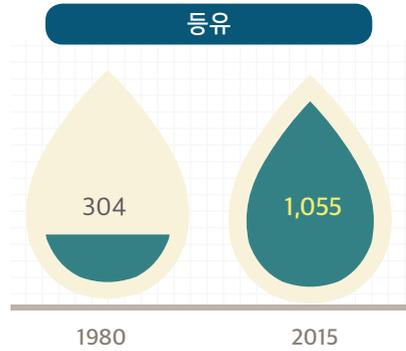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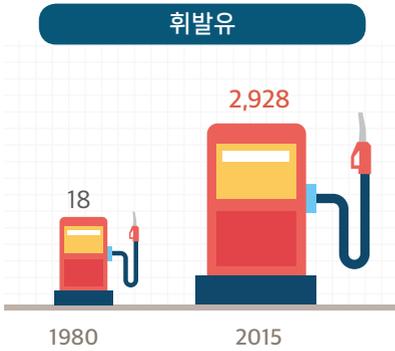


총복의 석유류 소비량은 11,632천 배럴이며, 종류별로는 경유(7,448천 배럴-%), 휘발유(2,928천 배럴-%), 등유(1,055천 배럴-%), 벙커C유(201천 배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에너지 소비는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와 비교해보면 휘발유(16,167%), 경유(3,759%), 등유(24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 급등은 역시 자가용 보급 급증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난방용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벙커C유 사용량은 84.8%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심권을 중심으로 LN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지역난방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저공해 에너지 활용이 본격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석유류 소비 절감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 : 천배럴

구분	계	휘발유	등유	경유	병커C유
1980	1,838	18	304	193	1,322
1990	7,030	816	989	3,515	1,709
1995	10,952	2,065	2,281	5,433	1,173
2000	7,962	1,746	2,328	3,053	836
2005	11,938	2,327	2,454	6,713	445
2010	12,436	2,627	1,920	6,447	1,442
2011	11,802	2,651	1,592	6,457	1,103
2012	11,790	2,713	1,392	6,772	913
2013	11,876	2,805	1,197	7,073	800
2014	11,198	2,791	977	6,945	484
2015	11,632	2,928	1,055	7,448	201

자료 : 한국석유공사, 충북통계연보

소비자 물가지수

식료품 · 비주류음료 **78.2%**
주류 및 담배 **113.7%**
의류 및 신발 **58.6%** 증가

술, 담배 가격은 오르고
통신비는 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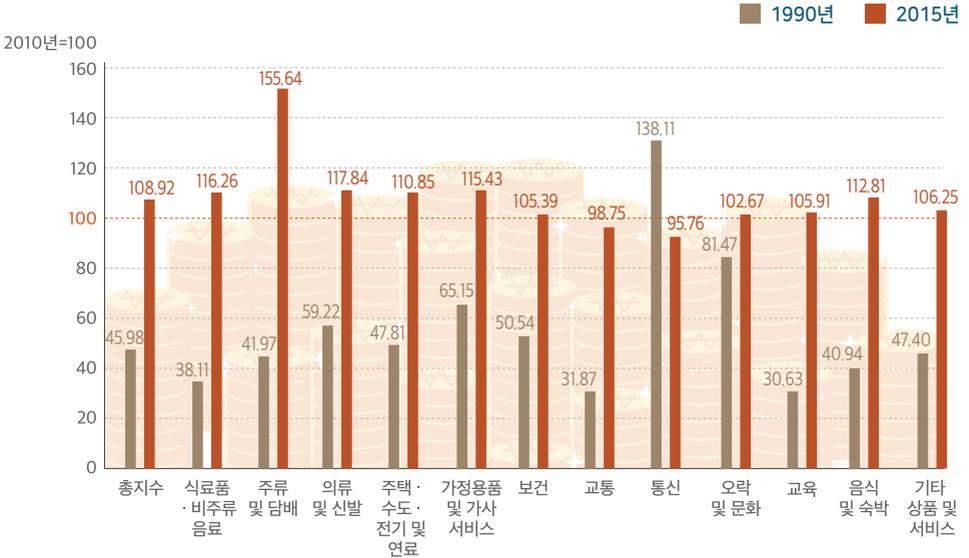


총복의 소비자 물가지수는(2010년 100 기준) 1990년(45.9), 2000년(73.8), 2010년(100.0), 2015년(108.9)로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10년 이후 상승세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4년을 기준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로 증가세는 식료품 · 비주류음료(78.2%), 주류 및 담배(113.7%), 의류 및 신발(58.6%), 주택 · 수도 · 전기 및 연료(63.0%),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50.3%), 보건(54.9%), 교통(66.9%), 통신(-42.3%), 오락 및 문화(21.2%), 교육(75.3%), 음식 및 숙박(7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58.9%)로 나타났다. 주류 및 담배가격의 상승세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통신비는 오히려 4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및 담배가격 상승은 이들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부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올린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신비의 인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란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 중 하나예요!



기준 : 2010년 = 100

구분	총지수	식료품·비주류 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및 문화	교육	음식 및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990	45.98	38.11	41.97	59.22	47.81	65.15	50.54	31.87	138.11	81.47	30.63	40.94	47.40
1995	60.73	52.09	54.83	70.18	61.17	79.29	62.59	49.20	133.89	92.62	50.15	61.11	56.51
2000	73.84	63.21	73.13	76.72	77.36	83.58	76.26	70.17	125.17	100.39	66.76	70.03	66.24
2005	85.88	80.32	97.08	85.54	89.48	88.89	91.07	83.06	105.99	98.74	81.13	83.95	75.80
201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10	100.00	100.00	100.00	100.00
2013	107.80	113.87	104.08	111.62	111.93	110.25	103.46	109.98	95.90	102.98	103.94	108.50	100.81
2014	109.08	114.84	104.31	116.15	114.47	112.56	104.12	108.78	95.89	103.16	104.96	110.15	104.10
2015	108.92	116.26	155.64	117.84	110.85	115.43	105.39	98.75	95.76	102.67	105.91	112.18	106.25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조사」

무역수지

2010년 수출

100억 달러,

2015년 수출

150억 달러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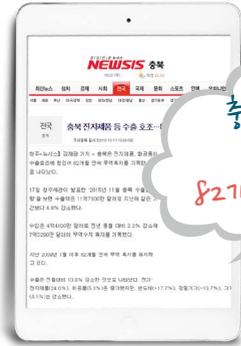


수출 150억 달러 무역수지 연속 흑자

충북의 무역수지는 1990년대 만성적자를 나타냈으나, 1995년 흑자로 반전한 이후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5년 1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할 정도로 수출은 지속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의 경우 수출보다 비중은 작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 왔으나, 2010년 이후 50-60억 달러 수준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무역수지가 흑자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충북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SK하이닉스 등), 이차전지(LG화학 등), 태양광(한화 큐셀 등) 등 대기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수입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무역흑자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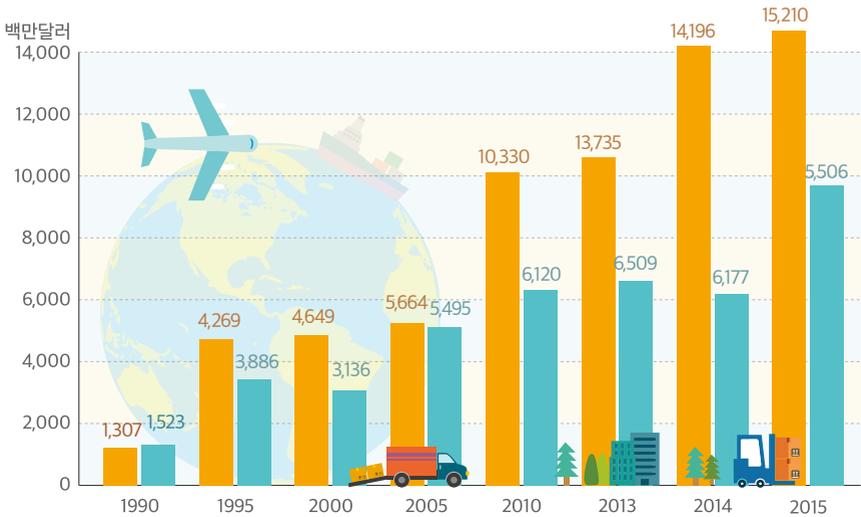
충북의 무역수지는 소수 대기업 주도로 전개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충북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
82개월 연속 무역흑자

청주세관이 발표한 '2015년 11월 충북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입은 4억4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해 7억32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출처:청주 뉴시스

■ 수출 ■ 수입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수출(A)	수입(B)	무역수지(A-B)
1990	1,307	1,523	-218
1995	4,269	3,886	383
2000	4,649	3,136	1,513
2005	5,664	5,495	169
2010	10,330	6,120	4,209
2013	13,735	6,509	7,226
2014	14,196	6,177	8,019
2015	15,210	5,506	9,704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충북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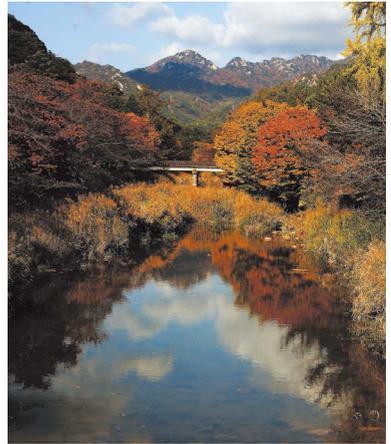
보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 속리산

한국 팔경 중의 하나

한국 팔경 중의 하나인 속리산은 태백산에서 남서방향으로 뻗어 나오는 소백산맥 줄기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백두 대간이 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왕봉에서 한남금북 정맥이 분기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북 보은군, 괴산군, 경북 상주시의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해발 1058m인 속리산은 화강암을 기반으로 변성퇴적암이 섞여 있어 화강암 부분은 날카롭게 솟아오르고 변성퇴적암 부분은 깊게 패여 높고 깊은 봉우리와 계곡은 가히 절경을 이루고 있어 광명산(光明山), 미지산(彌智山), 소금강산(小金剛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84 ☎ 043-542-5267



☉ 법주사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잠정목록 등재

속리산과 법주사는 아침에 조금 일찍 나서기만 하면 하루 코스의 여행으로도 안성맞춤이고, 등산을 겸해 1박 정도를 한다면 아주 좋은 여행코스입니다.

한국의 전통산사에 포함된 7개 산사 중 하나인 보은 법주사는 인도에서 비롯된 불교의 원형을 유지하고, 중국적인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한국 불교만이 가지는 통 불교적 사상과 의식, 승려, 생활,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유산으로 2013년 12월에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문화유산잠정목록' 으로 등재되었습니다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 043-540-3392~4



● 솔향공원 식물원

보은군 최초의 식물원

솔향공원 식물원은 솔향공원 및 돌리공원 일원에 조성된 보은 최초의 식물원으로 2014년 3월 27일에 개장하였습니다. 식물원은 4,458㎡의 규모로 온실, 야외전시원, 편의시설 및 탐방로 655M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식물원 안에는 관목류 및 산야초류를 비롯하여 야생화 등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611 ☎ 043-540-3216~9



● 보은대추축제

5천만 전국민이 함께 즐기는 맛의 감동!

보은탄생 60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제일의 맛을 자랑하는 보은 대추·청정농특산물의 실비판매, 민속소싸움대회,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가득한 5천만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보은 대추축제 행사장에 오셔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54 뱃들공원
☎ 043-540-3391-94, 1670-6114



● 속리산단풍가요제

깊어가는 가을밤에 함께 하는 가요제

속리산단풍가요제는 전국 단위 가요제로 매년 참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를 선발, 속리산 단풍 절정기에 본선을 실시합니다. 실력있는 본선 진출자들의 열띤 노래경연과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 불꽃놀이가 함께하는 속리산단풍가요제에서 깊어가는 가을밤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 속리산 잔디공원 야외 특설무대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건설 환경



78

주택현황

도시화로 인한 공동주택 주거 확대

80

주택 점유형태

1인가구 증가로 월세, 사글세 비중 급등

82

도로

사통팔달, 충북의 도로 현황

84

하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바람직한 하천으로

86

전력

산업용(제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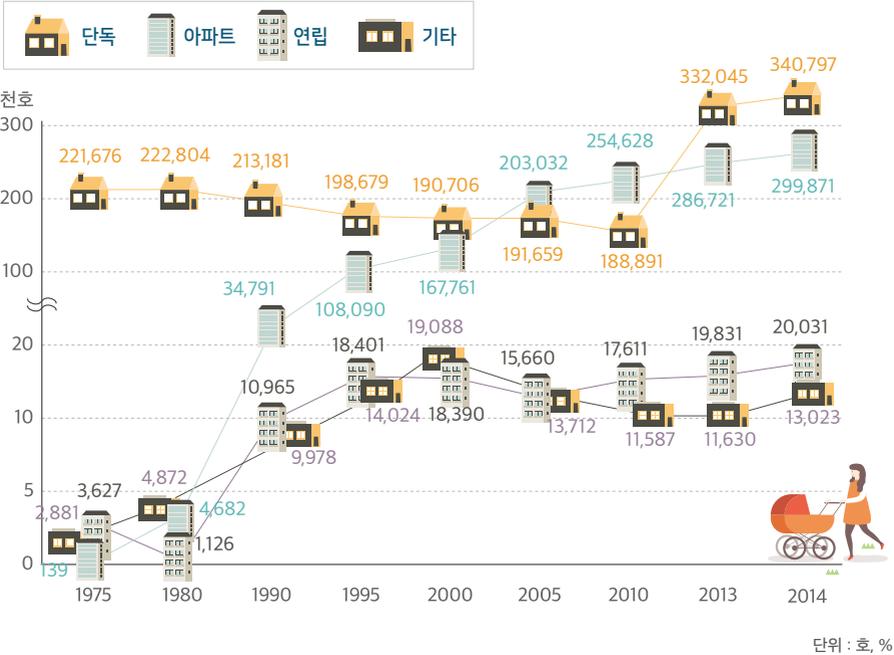
88

상수도

1일1인 급수량 지속적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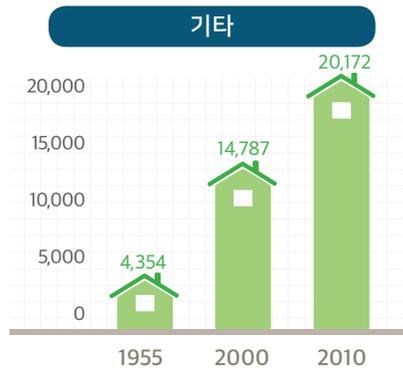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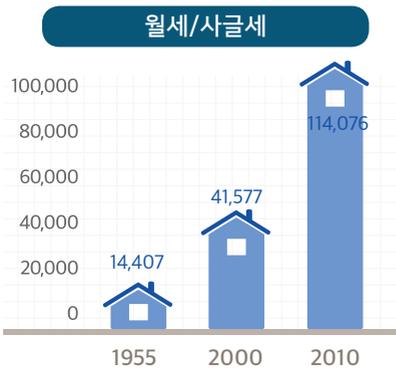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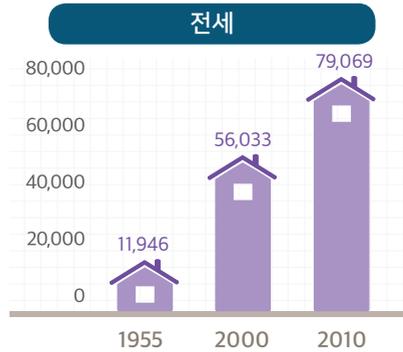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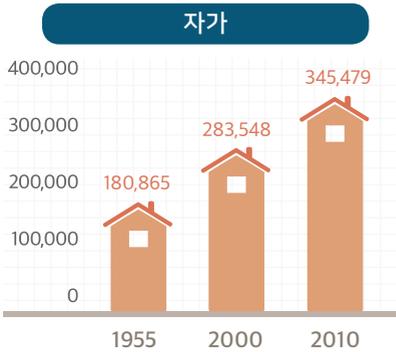
내 집 마련의 꿈!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이 좋은 충북에서~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2010년 까지), 건축문화과(2013년 부터)



1인 가구 시대를 반영한
'혼밥(혼자 먹는 밥)', '혼술(혼자 마시는 술)'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어요



단위 : 가구

구분	계	자가	전세	월세/사글세	기타
1955	211,572	180,865	11,946	14,407	4,354
1975	286,636	212,159	21,358	34,461	12,658
1980	290,941	212,155	37,132	34,120	7,534
1990	354,064	222,429	59,270	58,371	13,994
1995	407,664	265,563	74,189	54,384	13,528
2000	395,945	283,548	56,033	41,577	14,787
2005	505,203	303,995	73,328	107,376	20,504
2010	558,796	345,479	79,069	114,076	20,17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충북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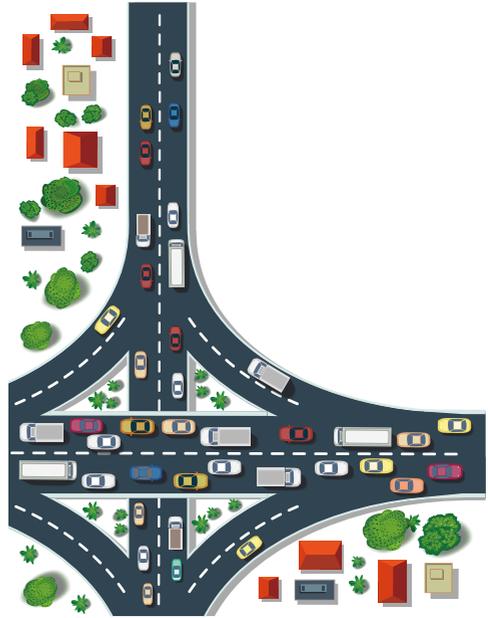
도로

충북의 도로

6,858km,

포장율

84%



사통팔달, 충북의 도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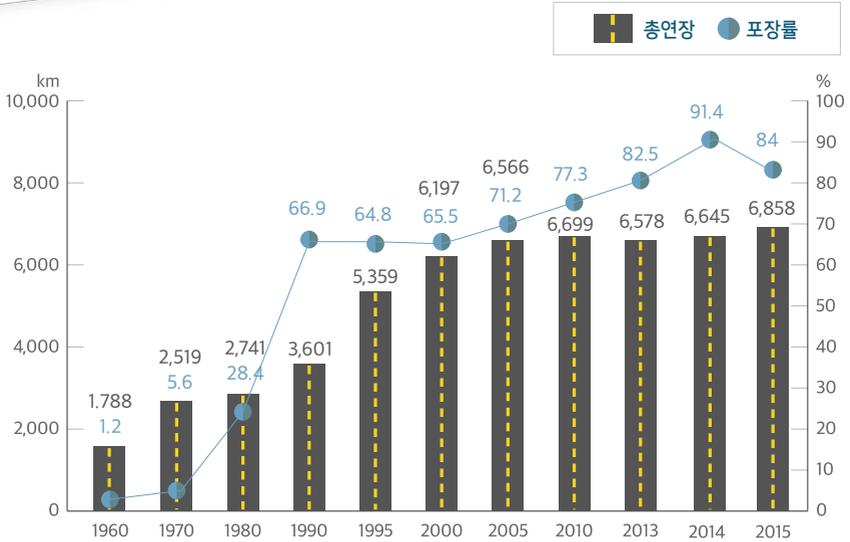
충북의 도로는 1960년 1,788km에서 2015년 현재 283.6%가 증가한 6,858km로 나타났다. 도로 포장도 21km(1.2%)에서 5,763km(84.0%)로 늘어났으며, 미포장도로는 1,686km에서 573km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개통도로는 81km에서 522km로 나타났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녹색교통수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고속도로 개통이 대부분 일단락 됨에 따라 추가적인 도로 개통은 급감하는 반면 철도 교통 비중을 제고시키고 있어 충북의 도로 확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안중-삼척도로, 제천-평창도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및 제2중부고속도로 등의 현안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 3차우회도로 개통 시내 30분 생활권 형성

3차 우회도로에는 지역을 연결하는 13개 교차로가 설치돼 오창, 진천, 증평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Km, %

구분	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포장률			
1960	1,788	21	1.2	1,686	81
1970	2,519	141	5.6	1,923	455
1980	2,741	780	28.4	1,600	361
1990	3,601	2,410	66.9	1,129	62
1995	5,359	3,460	64.8	1,353	546
2000	6,197	4,058	65.5	1,395	744
2005	6,566	4,672	71.2	851	1,043
2010	6,699	5,178	77.3	683	836
2013	6,578	5,429	82.5	575	574
2014	6,645	5,545	91.4	520	580
2015	6,858	5,763	84	573	522

자료 : 도로과, 「충북통계연보」

하천

하천 수

1962년 **182**개

2014년 **174**개



청주 무심천은 청주시민의 삶의 젖줄이자 생명의 터전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바람직한 하천으로

충북의 하천 수는 1962년 182개 였으나 2014년 현재 174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천 총연장도 2,412km에서 2,346km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하천의 요개수(정비가 필요한 곳)는 651개소에서 2,056개소로 21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개수(정비가 완료된 곳)은 275개소에서 1,214개소로 341.5% 증가하였고, 미개수(정비가 착수되지 못한 곳)은 376개소에서 538개소로 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하천의 효용성은 기존 환경정화기능 외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재조명됨에 따라 친환경적 하천정비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 개소, Km, %

구분	하천수	총연장	요개수			
			계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1962	182	2,412	651	275	376	42.2
1970	182	2,413	689	384	306	55.7
1980	182	2,374	1,457	788	669	54.1
1990	188	2,372	2,120	1,379	741	65
1995	188	2,372	2,470	1,607	863	65
2000	188	2,372	2,470	1,700	770	69
2005	183	2,342	2,472	1,845	627	75
2010	174	2,352	1,969	1,397	572	71
2011	174	2,346	1,979	1,212	767	61
2012	174	2,346	1,979	1,212	767	61
2013	174	2,346	1,979	1,212	458	61
2014	174	2,346	2,056	1,214	538	59

자료 : 치수방재과, 「충북통계연보」

전력

1980년

1,544,476Mwh

2015년

22,949,032Mwh

1,385.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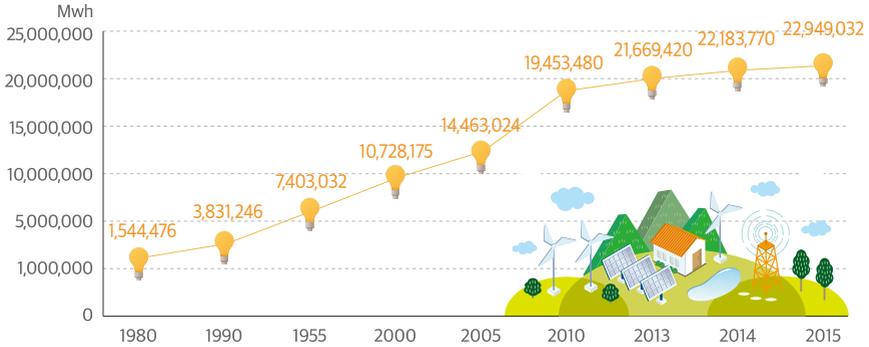
산업용(제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충북의 전력 현황은 1980년(1,544,476MWh)에서 2015년(22,949,032MWh)로 1,38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가정용(8.5%), 공공용(5.2%), 서비스업(19.5%), 산업용(66.8%)로 산업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산업용의 경우 농림수산(4.4%), 광업(0.8%), 제조업(94.9%)로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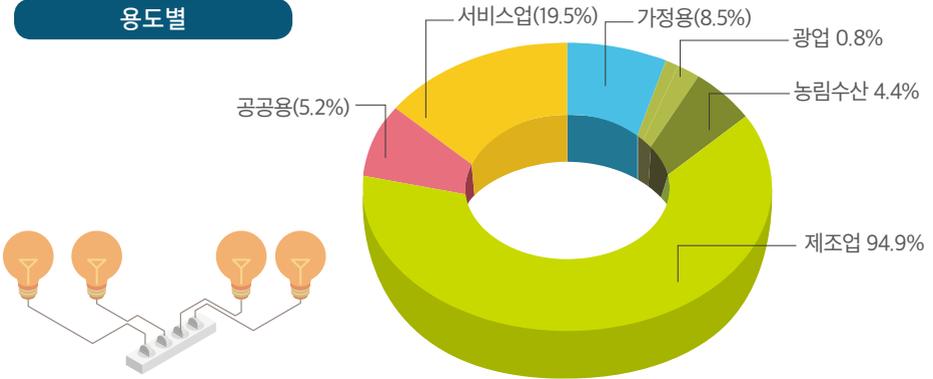
한편, 1980년을 기준으로 증감율을 살펴보면 평균 증가율이 1,385%로 나타났는데, 가정용(1,185.8%), 공공용(9,296.0%), 서비스업(4,749.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산업용의 경우 농림수산(9,680.3%), 광업(390.7%), 제조업(262.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충북의 전력사용량은 당분간 전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기료의 지속적 상승 등으로 친환경제품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사용량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전력 현황



용도별



단위 : MWh

구분	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산업용			
					소계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1980	1,544,476	150,899	12,692	92,340	1,288,544	6,836	23,836	1,257,872
1990	3,831,246	446,308	115,002	308,895	2,961,041	72,995	64,325	2,823,721
1995	7,403,032	784,146	155,071	784,299	5,679,516	157,676	73,891	5,447,949
2000	10,728,175	1,081,441	256,152	1,796,077	7,594,505	254,360	69,906	7,270,239
2005	14,463,024	1,464,322	505,952	3,382,156	9,110,594	309,990	88,369	8,712,235
2010	19,453,480	1,837,210	950,123	4,474,499	12,191,648	479,599	95,222	11,616,827
2013	21,669,420	1,916,082	1,157,115	4,539,574	4,056,648	584,477	110,890	13,361,281
2014	22,183,770	1,891,874	1,140,230	4,358,318	14,793,349	606,490	113,110	14,073,749
2015	22,949,032	1,940,308	1,192,535	4,477,619	5,338,569	668,578	116,955	4,553,036

자료 :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 충북통계연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90.2%

1일1인 급수량

422리터



건강하고 알뜰한
수도물 사용을 실천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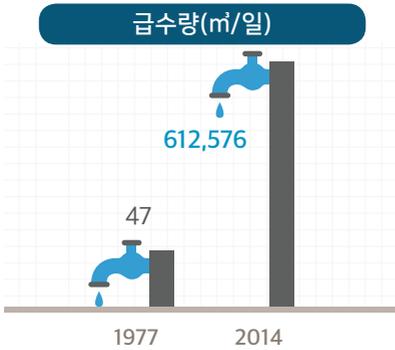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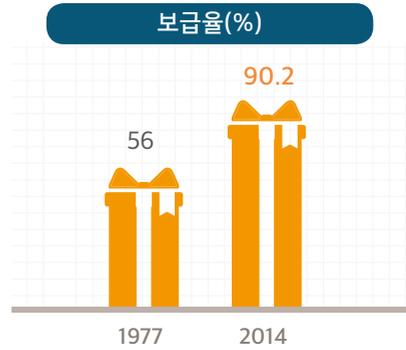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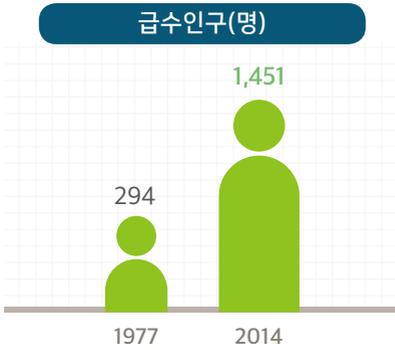
1일1인 급수량 지속적 상승세

2014년을 기준으로 충북의 상수도 급수인구는 1,451천명, 보급율 90.2%, 급수량은 일 612,576m³), 1일 1인 급수량은 422리터)로 나타났다.

충북 상수도 관련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77년을 기점으로 볼 때 급수인구는 393.5%, 보급률은 34.2%p, 1일1인 급수량은 163.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수자원 사용량은 경제 성장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충북의 경우에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용량이 급증추세를 나타내 1인1일 422리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1일 급수량은 최근까지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선진국의 사례로 볼때 향후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수도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읍면지역 보급 확대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구분	급수인구(천명)	보급률(%)	급수량(m ³ /일)	1일1인 급수량(ℓ)
1977	294	56	47	160
1980	413	60	71	173
1990	803	56.8	221,000	275
1995	919	63.7	326,043	355
2000	1,088	72.3	376,442	346
2005	1,201	80	484,273	361
2010	1,353	86	520,150	384
2012	1,394	87.6	566,396	406
2013	1,422	88.9	597,440	419
2014	1,451	90.2	612,576	422

자료 : 수질관리과, 「충북통계연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옥천

건강하고 풍요로운 Your옥천



◉ 정지용 생가

문향 그윽한

이허저가는 우리 고향의 정경을 오롯이 그려낸 국민시인 정지용. 그의 시 향수가 그러하듯 초가삼간 그의 생가는 그의 삶의 흔적을 질박하게 품어놓는다. 생가에서 한 폭의 맑은 수채화처럼 다가오는 정겨운 시를 기억하며 그의 삶의 흔적을 더듬어보자.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56 ☎ 043-730-3408



◉ 용암사 쌍삼층석탑으로 유명한, 천년고찰

고려 때 조성된 쌍삼층석탑과 마애불이 있는 옥천의 천년고찰 용암사. 용암사는 운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일출과 운해가 어우러진 절경을 카메라에 담으려 많은 사진작가들이 새벽을 도와 찾는다.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청2길 400

☎ 043-730-3413



◉ 부소담약 옥천의 소금강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부소무니 마을 앞 호반에 암봉들이 700m 가량 병풍처럼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이 암봉들의 파노라마는 우암 송시열이 소금강이라 예찬했을 정도로 예부터 옥천 제일의 선경을 자랑한다.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추소길 30

영동

영동에서 놀자!



· 영국사

많은 문화유적들이 그 신비함을 더해주는 곳

천태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영국사는 풍광 좋은 절로서 양산팔경의 정수이다. 그래서 영동에 가면 꼭 들러야 하는 영동 제1관광지로 천태산과 영국사를 꼽는다. 영국사는 1000년이 넘었어도 여전히 노익장을 자랑하고 있는 영국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223호)덕에 가을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절이기도 하다. 영국사는 큰 절은 아니지만 사찰 주변의 풍광이 아름답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멋진 은행나무가 있어 전국적으로 이름난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여름에는 주차장에서 사찰까지의 오솔길 산책이, 가을에는 은행나무와 더불어 천태산 단풍구경이 즐겁다.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길 225-35 ☎ 043-743-8843



· 영동햇곶감축제

과일의 성지, 영동에서 열리는 달콤한 축제

가을이면 집집마다, 거리마다 주렁주렁 열리는 영동 감은 강하게 내리쬐는 햇 빛 따라 단맛도 강해 곶감의 맛도 제법 달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영동곶감축제는 주홍빛 감들로 화려해 오히려 도로 가을이 된 듯 축제장이 빨갛게 물든다. 감을 이용한 여러 가지 체험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며, 감, 곶감, 사과, 배 등 영동군의 특산물을 저렴한 값에 구입 할 수 있다.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보건사회복지



- 94**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어요
- 96** **유형별 장애인 등록 현황**
2010년 이후 장애인 점감 추세
- 9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심한 맞춤형 배려가 필요해요
- 100** **의료시설**
건강한 삶! 의료시설 꾸준히 증가
- 102** **의료인력**
고급 인력의 역외유출 억제, 역내 산업 육성 시급
- 104** **국민연금**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370개

9,654명 수용

노인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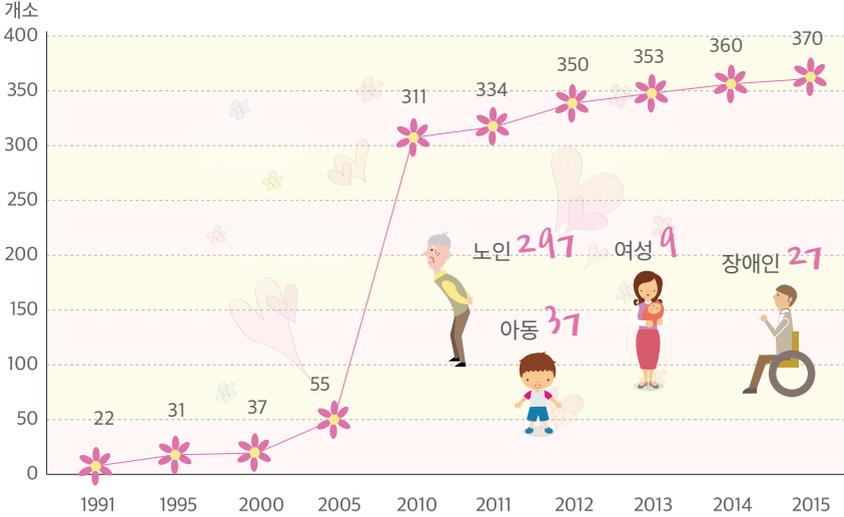
충북의 사회복지시설은 370개에 9,654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는 아동복지시설 10.0%, 노인복지시설 80.3%, 장애인복지시설 7.3%, 여성복지시설 2.4%, 기타 시설 1.1%이며, 수용인원별로는 아동복지시설 7.9%, 노인복지시설 73.4%, 장애인복지시설 16.9%, 여성복지시설 1.8%, 기타 시설 7.7%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가 국가공공의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1991년에 비해 시설수가 1,5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복지(362.5%), 노인복지(4,850.0%), 장애인복지(237.5%), 기타 시설(3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의 급증은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보이며, 조사 초기 존재하지 않았던 여성복지 시설 9개소가 신설된 것도 여성복지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집단시설(고아원) 대신 가정위탁이 증가하고 있어 증가세가 반감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고령화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노인복지 시설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행복으로 가는 길
 모든 모두가 행복하게 위해서는
 소외계층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해요.



단위 : 개소, 명

구분	합계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시설	수용	시설	수용	시설	수용	시설	수용	시설	수용
1991	22	1,976	8	538	6	606	8	832	-	-
1995	31	2,592	8	487	8	587	13	1,379	2	139
2000	37	3,090	8	595	10	788	15	1,578	4	129
2005	55	3,861	12	792	20	1,276	17	1,615	6	178
2010	311	7,455	37	891	245	4,776	23	1,685	6	103
2011	334	8,479	40	908	263	5,807	23	1,627	8	137
2012	350	8,695	39	947	279	5,924	24	1,663	8	161
2013	353	9,010	39	800	280	6,193	26	1,887	8	130
2014	360	9,319	36	756	290	6,687	26	1,696	8	180
2015	370	9,654	37	763	297	7,084	27	1,633	9	174

자료 : 여성정책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충북통계연보

*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만 포함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미포함

유형별 장애인 등록 현황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복지 실현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공극적인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룩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2015년 총북 장애인
93,532명,
그 중 여성 **42.5%**

2010년 이후 장애인 점감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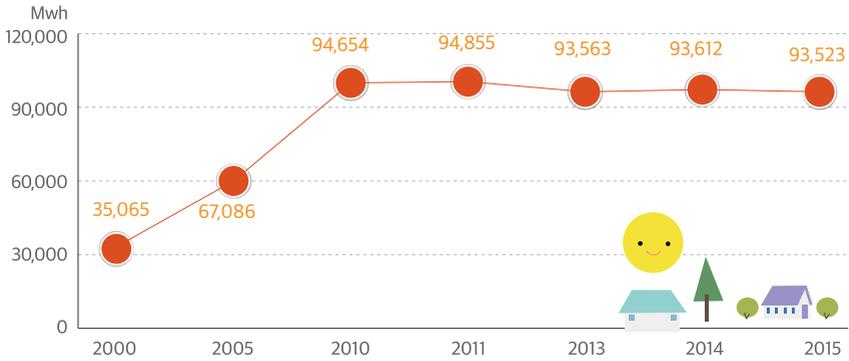
2015년 현재 총북의 장애인은 93,532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 가운데 여성이 42.5%로 집계되었다. 장애인 수는 2010년 이후 점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전체의 5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11.1%), 지적장애(10.1%), 시각장애(9.6%), 뇌병변(9.2%), 정신장애(4.0%), 신장장애(2.5%), 기타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1.7%), 자폐(0.6%), 심장(0.2%)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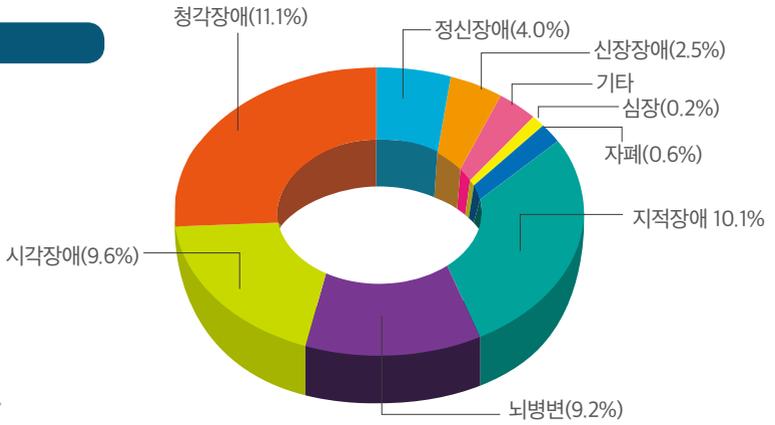
장애인은 2000년 대비 16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자폐성(1,462.2%), 뇌병변(714.3%), 정신(436.5%)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장애인 증가는 선천적인 요인 보다는 고령화, 교통사고 등에 따른 후천적인 요인의 증가가 큰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기피하던 장애인 등록을 통한 각종 혜택 수혜를 위한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장애에 대한 후속적 조치보다는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에 대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인 등록 현황



용도별



단위: 명

구분	합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기타*
2000	35,065	21,404	1,062	3,103	3,517	4,449	37	693	671	129	-
2005	67,086	35,562	6,008	6,598	6,911	6,450	274	2,412	1,209	342	1,320
2010	94,654	49,440	9,327	8,920	10,773	8,195	431	3,667	1,727	393	1,781
2011	94,855	49,416	9,231	8,966	10,842	8,475	450	3,603	1,863	287	1,722
2012	94,137	48,897	8,995	8,957	10,726	8,698	484	3,520	1,972	227	1,661
2013	93,563	48,436	8,713	8,934	10,555	8,973	512	3,566	2,048	207	1,619
2014	93,612	48,188	8,621	8,952	10,491	9,209	537	3,660	2,190	187	1,577
2015	93,523	47,715	8,648	8,982	10,369	9,426	578	3,718	2,333	168	1,586

자료: 노인장애인과

* 기타는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포함됨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1976년 대비

2015년

34.6% 증가
55,359명

세심한 맞춤형 배려가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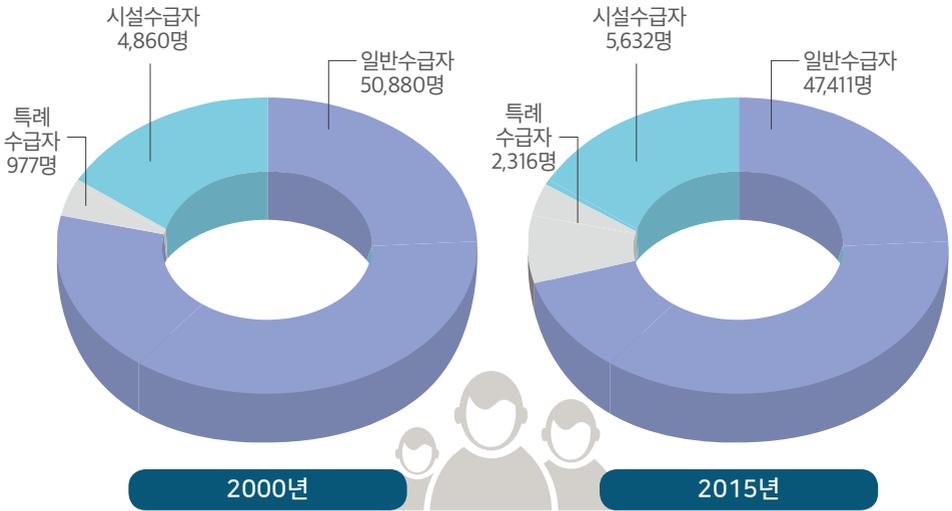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00년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명명)는 1976년보다 2015년 현재 34.6%가 증가한 55,35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일반수급자(85.6%), 시설수급자(10.2%), 특례수급자(4.2%) 순이며 남녀 성비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6년 41,126명에서 1990년 106,32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성장세가 꺾여 연차별로 차이는 있으나 4-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그 특성상 경기 여건에 따라 증감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 확대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가구당 생계·주거급여가 월 평균 11만원씩 늘어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맞춤형급여' 제도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선정기준 초과 시 모든 혜택을 중지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해 가구의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는 것이다.



단위 : 명

구분	합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1990	106,323	101,344	4,979	-
1995	53,101	47,767	5,334	-
2000	56,717	50,880	4,860	977
2005	57,910	51,646	5,099	1,165
2010	57,408	50,742	5,591	1,075
2011	53,370	46,584	5,461	1,325
2012	49,669	42,638	5,761	1,270
2013	46,372	39,115	5,704	1,553
2014	44,964	36,950	5,625	2,389
2015	55,359	47,411	5,632	2,316

자료 : 복지정책과(2000년 이전 생활보호대상자, 2015년 7월 맞춤형급여 시행)

의료시설

1960년
305개

2015년
1,67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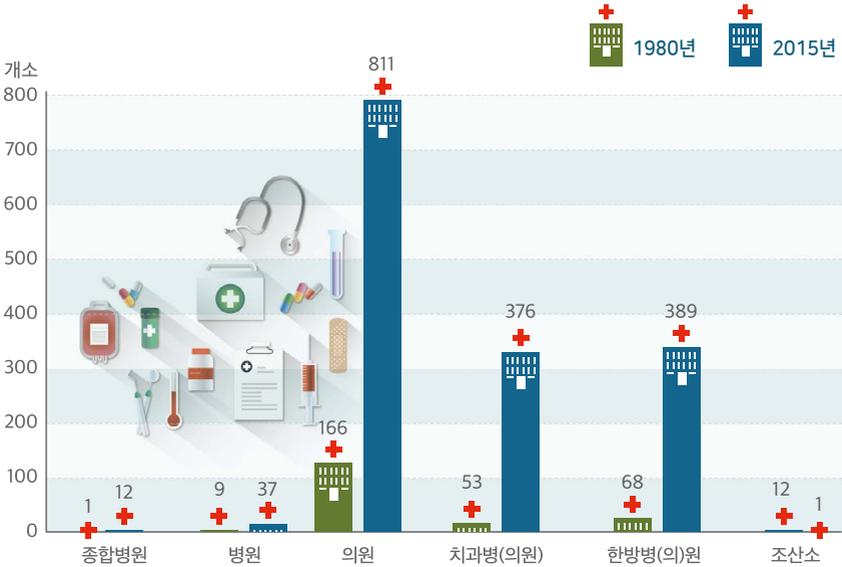


건강한 삶! 의료시설 꾸준히 증가

도내 의료시설은 1,679개로 1960년 305개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일반의원(811, 48.3%), 한방병(의)원(389, 23.2%), 치과(376, 22.4%), 병원(37, 2.2%), 종합병원(12, 0.7%), 부속의원(10, 0.6%), 특수병원(6, 0.4%), 조산소(1, 0.1%)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의료시설은 인구 증가와 함께 동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의료서비스에 대한 니즈도 상승하고 서울 등 종합병원으로의 선택진료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에서 우리나라로 의료관광을 오는 방문객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적 제고를 병행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의 건강을 가장 밀접하게 책임지고 있는 의료시설!
우리 지역엔 몇개의 의료시설이 있을까요?



단위 : 개소

구분	계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조산소
		종합병원	병원	의원			
1960	305	-	3	136	25	102	39
1965	334	-	4	164	26	117	23
1970	266	-	4	133	23	94	12
1980	292	1	9	166	33	61	12
1985	345	5	9	186	53	68	15
1990	500	8	9	277	98	91	8
1995	749	10	14	393	165	154	5
2000	1086	10	14	608	233	209	5
2005	1,309	12	24	736	247	269	3
2010	1,485	10	35	768	309	325	1
2013	1,584	11	37	772	346	366	1
2014	1,630	11	37	788	367	374	1
2015	1,679	12	37	811	376	389	1

자료 : 보건정책과, 충북통계연보

의료인력

의사 **2,175**명
한의사 **458**명
치과의사 **510**명
약사 **150**명

1960년 대비
의료인력 **1,200**명 이상 증가



고급 인력의 역외유출 억제, 역내 산업 육성 시급

도내 의료인력수는 1960년 238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현재 14,947명으로 무려 6,280.3%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분야별로는 간호조무사(5,379, 36.0%), 간호사(3,474, 23.2%), 의료기사(2,693, 18.0%), 의사(2,175, 14.6%), 치과의사(510, 3.4%), 한의사(458, 3.1%), 약사(150, 1.0%), 의무기록사(108, 0.7%), 조산사(6, 0.04%)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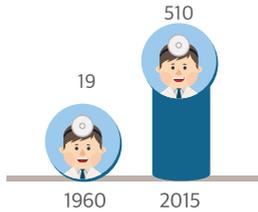
의료인력 수는 매우 증가하고 있으나 고급 전문인력인 의사, 한의사, 약사의 비중이 작고 증가세도 크지 않은 점은 역시 문제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다수의 대학에서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의사(충북대, 건국대), 약사(충북대), 한의사(세명대) 등이 배출되고 있으나, 역외유출이 큰 실정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역내 배출 인력의 역내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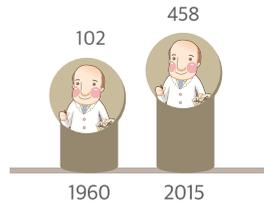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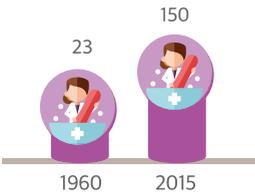
치과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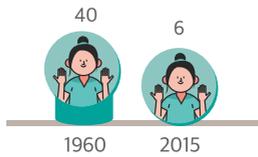
한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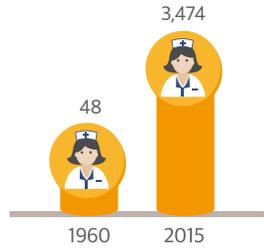
약사



조산사



간호사



단위 : 명

구분	합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1960	238	6	19	102	23	40	48
1965	704	148	24	97	204	81	150
1970	1,006	240	37	62	311	21	335
1980	2,934	510	109	100	39	22	692
1985	4,832	994	181	168	64	10	973
1990	7,042	1,372	264	234	62	6	1,544
1995	8,310	1,496	291	313	62	6	1,924
2000	11,167	1,773	374	402	91	8	2,679
2005	12,217	1,902	423	428	97	8	2,868
2010	11,834	1,966	398	426	128	8	2,762
2013	12,885	2,055	448	445	192	5	2,991
2014	14,445	2,097	489	463	205	9	3,238
2015	14,947	2,175	510	458	150	6	3,474

자료 : 보건정책과, 충북통계연보

국민연금

가입자 수

640,999명

1990년 대비

709.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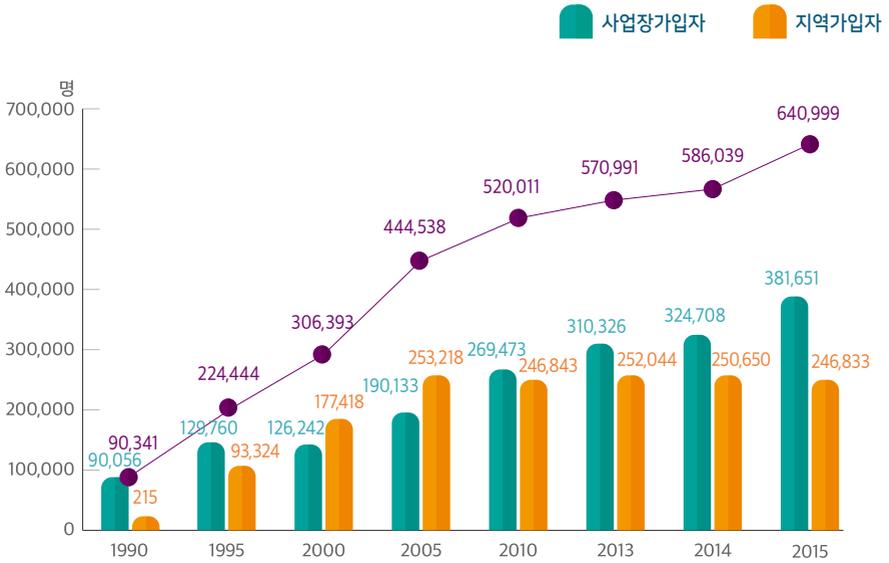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

도내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는 640,999명으로 지난 1990년 대비 709.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가입 사업자 수는 43,589개소이며, 사업장 가입인원은 381,65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5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역가입자는 246,833명(38.5%), 임의가입자는 12,515명(2.0%) 등으로 조사되었다.

1990년에 비해 사업장은 2,701% 사업장 가입자는 3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수는 1990년 215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현재 가입자 수가 246,833명으로 무려 114,70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고령자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고령자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민들의 가입자 확대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이 더욱 정교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자 최고의 복지수단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단위 : 명, 개소

구분	총가입자수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수	사업장 가입자			
1990	90,341	1,556	90,056	215	-	70
1995	224,444	3,865	129,760	93,324	1,046	314
2000	306,393	5,648	126,242	177,418	588	2,145
2005	444,538	16,786	190,133	253,218	614	573
2010	520,011	28,819	269,473	246,843	2,234	1,461
2013	570,991	35,734	310,326	252,044	4,392	4,229
2014	586,039	39,452	324,708	250,650	4,743	5,938
2015	640,999	43,589	381,651	246,833	5,154	7,361

자료 : 국민연금공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증평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



· 증평인삼골축제

충북인삼의 메카

‘증평인삼골축제’는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린 증평의 특산품 인삼을 모토로 증평 양돈산업을 특화시킨 홍삼포크를 널리 알리고 더불어 증평군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축제의 장이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문화행사. 주 무대를 중심으로 행사장 일원에서 크고작은 공연과 체험 행사가 펼쳐져 축제장을 찾아 온 관광객들은 지루할 틈이 없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로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 인삼캐기체험, 동물농장체험, 키즈체험존, 열린콘서트, 인삼골노래자랑, 토피어리 전시, 추억의 도시락 시연·판매 등의 행사 외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인삼로 23(증평종합스포츠크센터) ☎ 043-835-3977, 4112



· 좌구산자연휴양림

몸과 마음 삶의 활력충전소

증평군의 최고봉. 좌구산(657m)은 한남금북정맥 상에 위치하는 증평군의 명산이다. 이 산은 충북 속리산 천황봉에서 경기 안성군 칠장산에 이르는 한남금북정맥을 종주하고자 하는 산꾼들에게나 알려졌을 뿐 이름 없는 산골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그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숨은 명산이었다.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숲점말길 107

☎ 043-835-3871~3

진천

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



● 농다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

사력 암질의 붉은 돌을 쌓아서 만든 다리로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긴 옛 다리이다. 사력암질의 붉은색 돌을 쌓아 축조한 다리로서 석회등을 바르지 않고 그대로 쌓았는데 견고하며 장마가 저도 유실됨이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601-32 ☎ 043-539-3862



삼국통일의 서막이 열린 곳

●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이자 그의 태줄을 보관한 태실은 국가사적 제414호로 지정된 곳으로 신라 삼국통일의 위대한 서막이 열린 곳이다. 현존하는 태실 가운데 가장 오래된 태실 축조형식을 가진 것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김유신길 170-4
☎ 043-539-3624



● 생거진천문화축제

진천 향토문화축제

충청북도 진천은 예로부터 들이 넓고 수리 시설이 잘 갖추어져 농업이 발달하고 산물이 풍부하여 '생거진천(生居鎭川)'이라 불리어 왔다. 1979년부터 '상산축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최가 되었다.

📍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백곡천 둔치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교통관광



110 자동차

자동차, 이제는 생활 필수품

112 전화가입자 수

가정용 가입자는 감소, 기업용은 여전히 증가세

114 인터넷

스마트폰 영향으로 컴퓨터 보급율 하락세

116 관광객

함께하면 행복한 충북나드리

118 여권

해외 유학, 여행 등 당분간 확대 추세

자동차

보유대수 **73**만대
세대당 **1.09**대
승용차 **75%**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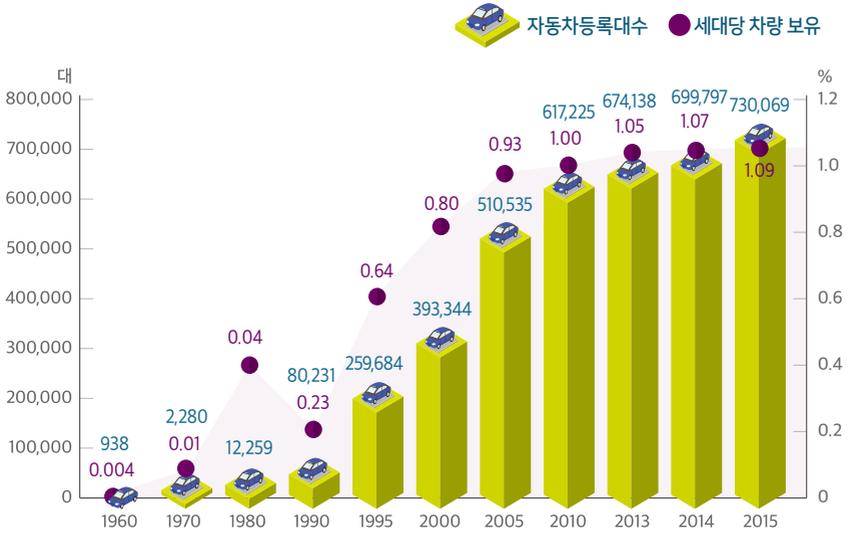
자동차, 이제는 생활 필수품

도내 자동차는 1960년대 불과 938대에 불과했으나 산업화 및 경제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마이카 붐이 급격히 확산된 1990년대 이후 폭발적 증가세를 기록하여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는 1960(0.004대), 1970(0.01대), 1980(0.04대), 990(0.23대), 2000(0.80대), 2010(1.00대)을 넘어선 이해 2015년 현재 1.09대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현재 도내 자동차 수는 총 730,069대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승용차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545,983(84.8%), 화물차 147, 597(20.2%), 승합차 22,274(4.6%), 특수차 3,215(0.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의 증가율은 1960년 대비 77,732.5%, 1990년 대비 810.0%, 2010년 대비 18.3%로 증가세가 다소 진정되었다고는 하지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자동차 확대의 가장 큰 분야로 나타나고 있는 승용차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물류의 특성상 화물차의 비중 역시 당분간은 감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승용차 수요 억제와 친환경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60년 대비 77,732.5%
1990년 대비 810.0%
2010년 대비 18.3% 증가



단위 : 대

구분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세대당 차량보유
1960	938	197	131	599	11	0.004
1970	2,280	670	432	1,167	11	0.01
1980	12,259	3,638	1,176	7,301	144	0.04
1990	80,231	40,113	10,730	29,111	277	0.23
1995	259,684	169,559	19,804	69,065	1,256	0.64
2000	393,344	243,534	47,024	101,108	1,678	0.80
2005	510,535	344,647	38,172	125,441	2,275	0.93
2010	617,225	443,053	37,867	133,942	2,363	1.00
2013	674,138	496,897	35,063	139,425	2,753	1.05
2014	699,797	519,581	34,105	143,169	2,942	1.07
2015	730,069	545,983	33,274	147,597	3,215	1.09

자료 : 교통물류과, 충북통계연보

전화가입자 수

전화가입자수

2014년 기준

1,067,724명



가정용 가입자는 감소, 기업용은 여전히 증가세

국내 전화 가입자 수는 2014년 현재 1,067,724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가정용은 61.1%인 651,910명, 업무용(기업용)이 38.9%인 415,425로 나타났다. 한편 공중전화는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70년대 110대에서 1980년대 1938대, 1990년 7,093대로 급증하였으나, 휴대폰 보급의 폭발적 증가로 급감하여 389대만 남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화가입자를 연차별로 살펴보면 전체 가입자는 1970년 대비 8,973%, 1980년 대비 1,579.4%, 1990년대비 188.3% 증가해 점차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는 가정용은 2014년부터 증가세가 감소세로 반전된데 비해 업무용(기업용)의 비중은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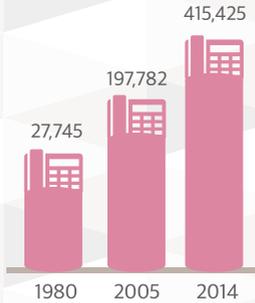
1970년 대비 8,973%
1980년 대비 1,579.4%
1990년 대비 188.3% 증가

휴대폰 보급의 폭발적 증가로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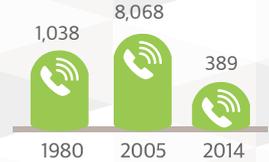
가정용 가입자



업무용(기업용) 가입자



공중전화설치(대)



단위 : 명

구분	가입자 수			공중전화설치(대)
	계	가정용	업무용(기업용)	
1970	11,768	3,396	8,372	110
1980	63,577	35,832	27,745	1,038
1990	370,366	299,223	71,143	7,093
1995	541,343	408,621	132,722	10,153
2000	634,664	438,561	196,103	17,090
2005	634,760	436,978	197,782	8,068
2010	455,004	362,934	92,070	3,541
2011	218,554	32,632	185,922	3,250
2012	920,762	568,187	352,575	3,011
2013	1,029,921	660,907	369,014	2,677
2014	1,067,724	651,910	415,425	389

자료 : 충북통계연보

인터넷

인터넷 이용자

118만명

가구 컴퓨터 보유율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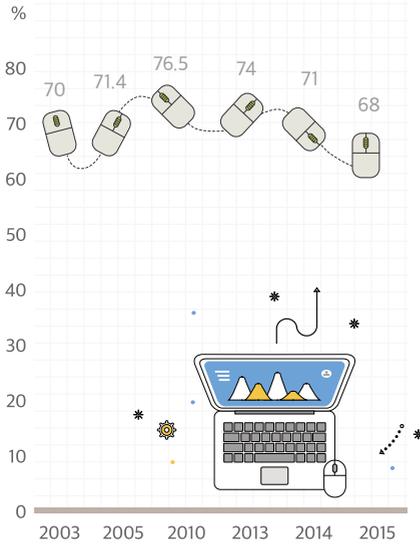
스마트폰 영향으로 컴퓨터 보급율 하락세

도내 인터넷 가입자수는 2003년 이미 62.0%를 기록했으며, 이후 지속적 증가세를 나타내 2015년 현재 77.8%인 1,18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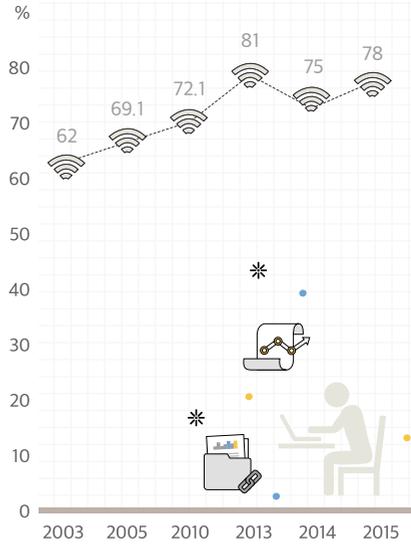
가구당 컴퓨터 보유율은 2010년 기점으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휴대폰이 고성능화되면서 일반 개인용 컴퓨터의 기능을 대부분 수행함에 따라 컴퓨터 보급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인터넷 이용률을 통해 도내의 인터넷 보급률과 그 증가 추이를 알 수 있어요

가구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 이용률



요즘은 대부분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바다**를 누릴 수 있어요~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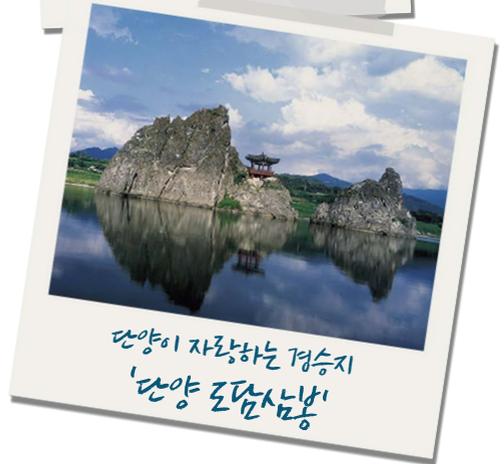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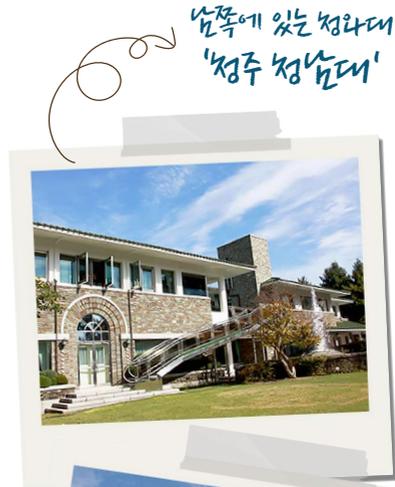
구분	가구 컴퓨터 보유율		인터넷 이용률	
	보유율	미보유율	이용자수	이용률
2003	70	30	850	62
2005	71.4	28.6	960	69.1
2010	76.5	23.5	1040	72.1
2013	74	26	1,230	81
2014	71	30	1,153	75
2015	68	32	1,181	78

자료 : 통계청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관광객

도내 관광객
18,282천명
외국인 관광객
0.7%

함께하면 행복한
충북나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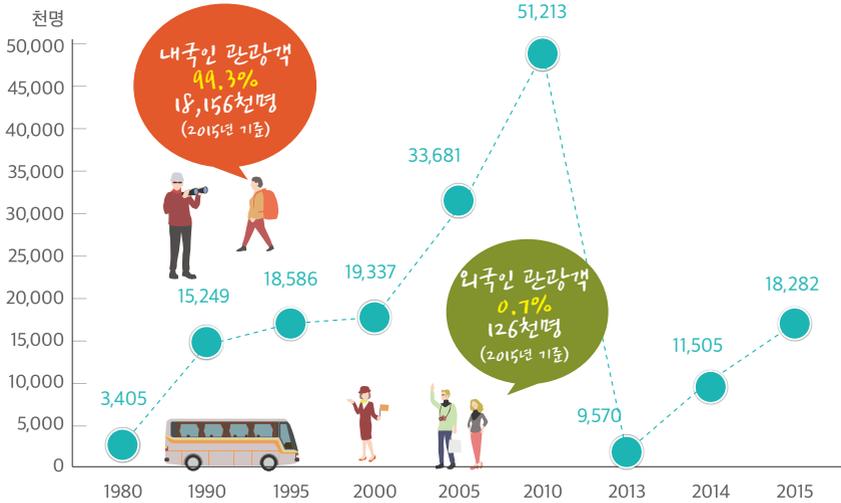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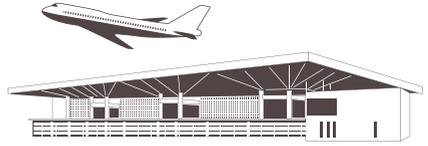
도내 방문 관광객은 2015년 현재 18,282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내국인이 99.3%인 18,156천명, 외국인이 0.7%인 126천명으로 집계되었다.

1980년 전체 관광객은 3,405천명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볼때 436.9%, 1990년 대비 19.9%, 증가한 수치로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기는 하지만 타 지역과 비교시 충북의 관광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비중은 연차별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1.0%를 크게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충청북도에서는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향후 가시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마을까지 정화되는 힐링 공간,
함께하면 행복한 충청북도로 여행~

충북은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단위 : 천명

구분	계	내국인	외국인
1980	3,405	3,376	29
1990	15,249	15,210	39
1995	18,586	18,373	213
2000	19,337	19,040	297
2005	33,681	33,038	643
2010	51,213	50,654	559
2013	9,570	9,331	239
2014	11,505	11,354	151
2015	18,282	18,156	126

자료 : 관광항공과, 충북통계연보

※ '13년부터 관광객 통계가 '관광지방문객보고통계'에서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로 개선.

객관적 집계(무인계측기, CCTV, 입장권) 관광지예 한해 통계 인정

※ 주요관광지점 : '13년도 83개소 ⇒ '14년도 110개소

여권

여권발급자

105,578명

도민의 **6.6%**



해외 유학, 여행 등 당분간 확대 추세

2015년 현재 도내 여권 발급자는 105,578명으로 160만 도민의 6.6%가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급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50.4%로 남성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세 이하(26.2%), 20-30세(20.2%), 51-60세(15.6%), 41-50세(15.2%), 31-40세(12.4%), 61세 이상(10.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1997년과 비교시 여권 발급자는 262.4% 증가하였고, 연령대별로는 20세 이하의 증가율이 757.1%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충북의 여권 발급은 대부분 일반 여권으로 대부분 관광을 목적으로 여권발급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여권 발급자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 명

구분	합계	20세이하	21~30	31~40	41~50	51~60	61세이상
1997	29,132	3,225	9,049	5,438	3,832	4,395	3,193
2000	38,415	5,151	9,164	6,870	6,268	6,292	4,670
2005	69,153	9,937	17,637	10,452	12,480	10,228	8,419
2010	97,307	18,760	17,980	15,072	17,653	16,579	11,263
2011	81,886	16,662	15,985	12,806	13,715	13,463	9,255
2012	85,818	19,562	16,051	12,868	13,884	14,660	8,793
2013	83,655	20,396	16,235	12,636	13,218	12,873	8,297
2014	84,048	21,070	17,605	11,796	13,053	12,612	7,912
2015	105,578	27,642	21,335	13,136	16,067	16,520	10,878

자료 : 자치행정과

괴산

활기찬 괴산



● 산막이옛길

수풀냄새 싱그러운 산바람과 산들거리며 불어오는 강바람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사오랑 마을에서 산골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됐던 총 길이 4km의 옛길로서 흔적처럼 남아있는 옛길에 덧그림을 그리듯 그대로 복원된 산책로이며 옛길 구간 대부분을 나무반침(데크)으로 만드는 친환경 공법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살아있는 자연미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막이옛길을 따라 펼쳐지는 산과 물,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은 괴산의 백미로 꼽을 수 있는 곳이다.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산막이옛길 88



● 괴산고추축제

고추가 좋은 날! 괴산으로의 여름소풍!

한여름 끝 같이 달~달한 괴산 고추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유기농의 심장 괴산에서 괴산고추축제를 개최합니다.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괴산청결고추와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를 한곳에서 느낄 수 있는 괴산고추축제는 2016년 5회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인증 받은 축제입니다. 나른한 한여름 활기를 불어 넣을 괴산고추축제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 괴산문화체육센터 및 동진천 일원

음성

미래를 창조하는 중부권 핵심도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마을

음성의 자랑 민족의 자랑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마을인 행치마을은 보덕산이 좌우에서 감싸 안고 있으며, 온화하고 정겨운 느낌이 드는 마을로, 생가터 및 선영과사당, 돌만든세계도(족보), 기념 시비, 연못 등이 있다

반 총장 생가는 원남면 상당1리 행치마을 가운데 초가삼간 토담집으로 있었는데 새마을 사업시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조되었다가 2002년 3월경에 철거 되었다

새가는 예전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복원되었으며, 반기문 기념관, 평화랜드가 완공되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행치길 17-1 ☎ 043-871-5932



음성인삼축제

국내인삼의 주산지 "이름있는 인삼, 얼굴있는 인삼"

음성인삼축제는 전국 인삼 생산량의 5%를 차지하는 음성인삼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인삼주산지로서의 명성을 확보하고, 얼굴있는 음성인삼을 만들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사 소득 증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 금왕읍 응천 행사장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교육문화



124 학교 현황

초등학교는 감소, 대학교는 지속적 증가

126 유치원

보육 시설 늘어나 부모 부담 감소

128 초등학교

학교와 학생수는 감소 추세지만 교육여건은 개선되었어요

130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줄고 있어요

132 고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인문교육과 직업교육 등 다양하게 나타나

134 공공도서관

도서관! 문화체험공간으로 거듭나다

136 문화재 현황

도심 속 가까이 향유하는 문화

학교 현황

1965년 **438**개
2015년 **829**개
89.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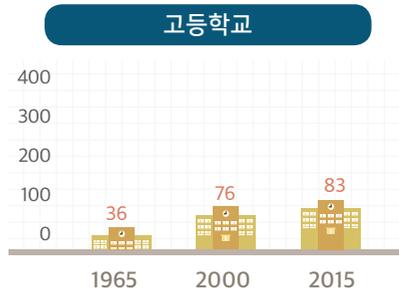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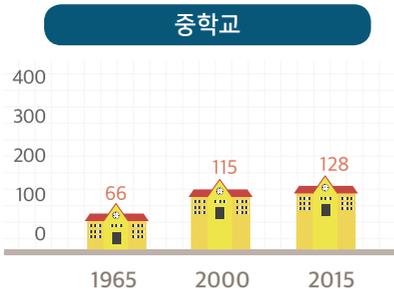
초등학교는 감소, 대학교는 지속적 증가

도내 학교 현황은 집계가 처음 시작된 1965년 438개에서 2015년 현재 829개교로 8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교 가운데 유치원 343개교(41.4%), 초등학교 260개교(31.4%), 중등교육기관인 중학교 128개교(15.4%), 고등학교 83개교(10.0%),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 5개교(0.6%), 대학교 10개교(1.2%)로 나타났다.

도내 교육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성장율을 나타낸 것은 유치원으로 무려 3,018%의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초등학교는 오히려 80.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산촌 소규모학교의 폐교 등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1980년대 충청대와 청주 간호전문대(현 한국교통대로 합병)가 개교한 이래 5개교로 확대되었고, 4년제 대학의 경우 에도 충북대, 청주대와 함께 1970년대 수도여사대(청주사범대로 개칭되었다가 현 서원대로 개칭)가 개교한 이래 10개교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치원 3,018% 증가

1980년 이전까지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1980년대를 지나면서 유치원 원아수가 빠르게 증가했어요.



단위 : 개교

구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	대학
1965	438	11	323	66	36	-	2
1970	515	10	372	87	43	-	3
1980	599	30	397	105	62	2	3
1990	895	375	337	109	67	3	4(1)
1995	874	393	283	114	73	5	6(1)
2000	812	360	247	115	76	6	8(1)
2005	815	347	252	123	79	6	8(1)
2010	835	346	259	132	83	5	10(1)
2013	825	341	259	127	83	5	10(1)
2014	830	344	259	128	84	5	10(1)
2015	829	343	260	128	83	5	10(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 대학의 ()는 분교수로 전체수에 미포함

※ 학교 수 계산시 분교, 폐교 제외, 교원수는 정규교원(휴직교원 포함) 및 기간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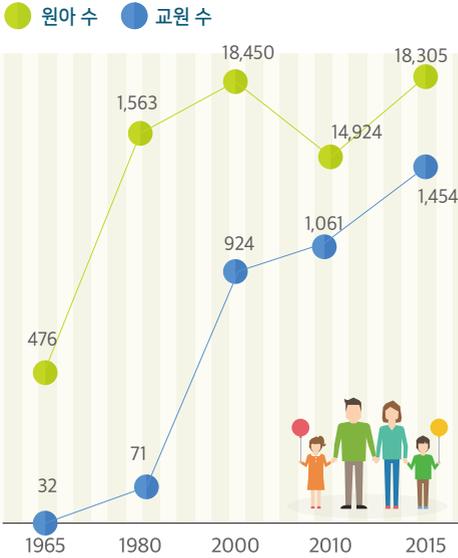
유치원 **343**개
원아 **18,305**명
교원 **1,454**명



보육 시설 늘어나 부모 부담 감소

도내 유치원 수는 1965년 11개에서 2015년 현재 343개로 무려 31배 증가하였고 원아수도 476명에서 18,305명으로 38배 증가하였고, 교원수도 32명에서 1,454명으로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수도 12개 교실에서 1,022개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의 특성상 여성 교원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1965년 31.3%에 달하던 남성 교원 비중이 1980년 19.7%, 1990년대 6.5%, 2015년 현재 2.1%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원아 수는 14.9명에서 12.6명으로, 학급당 원아 수는 39.7명에서 17.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위 : 개교, 명, 개

구분	유치원수	원아수		교원수		교원 1인당 원아수	학급당 원아수	학급수
		계	여	계	여			
1965	11	476	204	32	22	14.9	39.7	12
1970	10	440	205	33	23	13.3	27.5	16
1980	30	1,563	703	71	57	22.0	35.5	44
1990	375	16,458	7,801	520	486	31.7	27.2	606
1995	393	18,461	8,751	869	819	21.2	25.8	715
2000	360	18,450	8,788	924	904	20.0	25.6	722
2005	347	16,298	7,855	955	939	17.1	21.8	747
2010	346	14,924	7,254	1,061	1,037	14.1	18.6	801
2011	344	15,317	7,416	1,073	1,051	14.3	18.7	819
2012	344	16,792	8,087	1,168	1,138	14.4	19.2	873
2013	341	17,446	8,351	1,297	1,272	13.5	18.5	943
2014	344	17,489	8,504	1,439	1,405	12.2	17.9	978
2015	343	18,305	8,849	1,454	1,423	12.6	17.9	1,02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학교 수 계산시 분교, 폐교 제외, 교원수는 정규교원(휴직교원 포함) 및 기간제 포함

초등학교

초등학교 **260**개
학생 수 **85,29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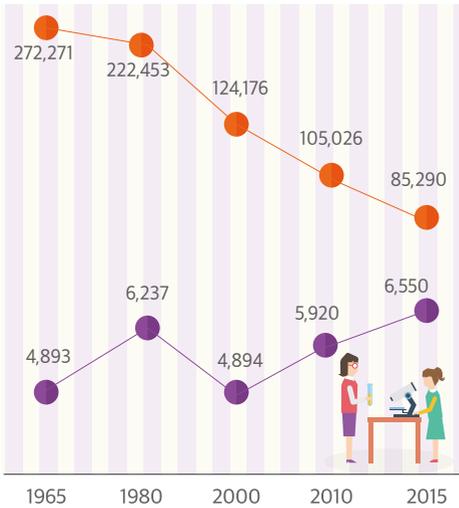
학교와 학생수는 감소 추세지만 교육여건은 개선되었어요

2015년 현재 도내 초등학교는 260개, 학생수 85,290명, 교원 6,550명, 학급 수는 4,24교실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인구감소와 이농향도의 영향으로 농산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교 수가 1965년보다 19.5%가 감소하였으며, 학생수도 68.7%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교육여건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65년 55.6명에서 13.0명으로 감소하였고, 학급당 학생수도 60.7명에서 20.1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여성 교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1965년(23.6%), 1970(25.1%), 1980(29.6%), 1990(35.3%), 2000(58.3%)로 여초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2015(71.5%)를 나타내 3/4이 여성교사로 나타났다.

● 학생 수 ● 교원 수



단위 : 개교, 명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계	여	계	여			
1965	323	272,271	128,385	4,893	1,153	55.6	60.7	4,488
1970	372	310,348	148,117	6,043	1,514	51.4	56.4	5,505
1980	397	222,453	108,341	6,237	1,848	35.7	40.8	5,449
1990	337	153,273	74,653	5,353	1,887	28.6	34.7	4,416
1995	283	122,589	58,919	5,158	2,125	23.8	31.8	3,859
2000	247	124,176	58,307	4,894	2,851	25.4	32.0	3,878
2005	252	126,588	59,778	5,508	3,600	23.0	29.6	4,277
2010	259	105,026	50,112	5,920	4,244	17.7	25.5	4,115
2011	260	99,902	47,681	6,296	4,533	15.9	23.2	4,297
2012	259	94,507	45,134	6,384	4,614	14.8	22.3	4,244
2013	259	88,860	42,680	6,360	4,601	14.0	21.3	4,170
2014	259	86,508	41,556	6,482	4,677	13.3	20.8	4,166
2015	260	85,290	41,049	6,550	4,681	13.0	20.1	4,24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학교 수 계산시 분교, 폐교 제외, 교원수는 정규교원(휴직교원 포함) 및 기간제 포함

중학교

중학교 **128**개
학생 수 **50,70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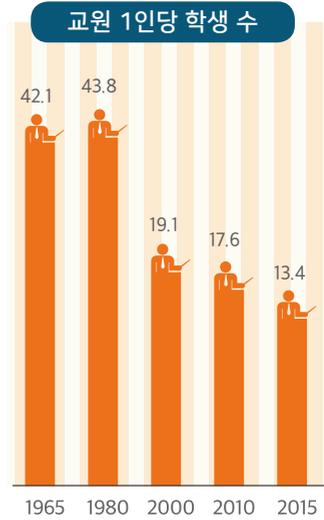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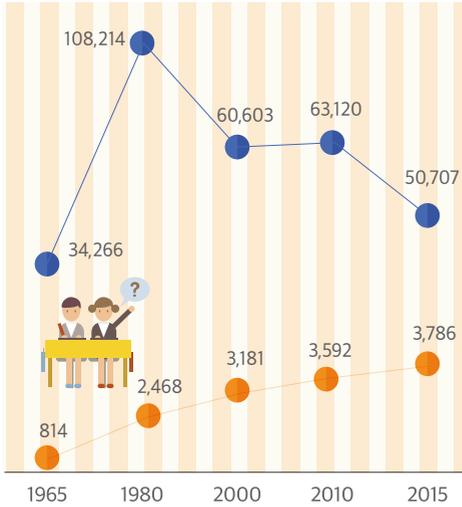
학급당 학생수가 줄고 있어요

2015년 현재 도내 중학교는 128개, 학생수 50,707명, 교원 3,786명, 학급 수는 1,844교실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1966년 66개교에서 2배 가량 증가한 128개교로 집계되었으나, 2010년 132개교에서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교육여건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65년 42.1명에서 13.4명으로 감소하였고, 학급당 학생수도 50.8명에서 27.5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초등학교와 달리 남성 교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남성 교원 비중이 감소해 여성 교사의 비중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65년(12.3%)에 불과하던 여성 교사 비중이, 1970년(13.3%), 1980년(29.0%), 1990년(36.4%), 2000년(46.8%)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25.5%)로 여초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63.1%)로 여초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 학생 수 ● 교원 수



단위 : 개교, 명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계	여	계	여			
1965	66	34266	10746	814	100	42.1	50.8	675
1970	87	55,241	17,966	1,262	168	43.8	58.6	943
1980	105	108,214	50,323	2,468	716	43.8	60.2	1,798
1990	109	78,070	38,195	3,359	1,223	23.2	48.4	1,613
1995	114	79,202	38,885	3,719	1,451	21.3	45.0	1,761
2000	115	60,603	29,120	3,181	1,488	19.1	39.0	1,553
2005	123	61,447	28,817	3,587	1,914	17.1	32.2	1,906
2010	132	63,120	30,094	3,592	2,103	17.6	31.8	1,986
2011	131	61,590	29,446	3,754	2,238	16.4	31.1	1,978
2012	130	59,452	28,610	3,749	2,252	15.9	30.6	1,944
2013	127	57,623	27,488	3,797	2,296	15.2	30.0	1,921
2014	128	54,970	26,277	3,857	2,376	14.3	29.0	1,897
2015	128	50,707	24,166	3,786	2,389	13.4	27.5	1,84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학교 수 계산시 분교, 폐교 제외, 교원수는 정규교원(휴직교원 포함) 및 기간제 포함

고등학교

고등학교 **83**개
학생 수 **56,227**명



중학교와 달리 인문교육과 직업교육 등 다양하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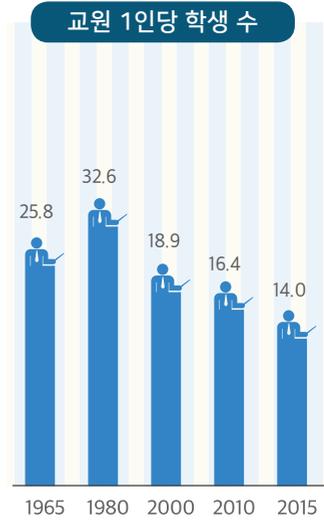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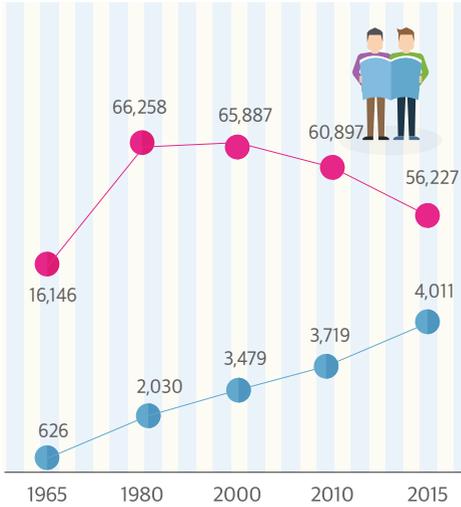
2015년 현재 도내 고등학교는 83개, 학생수 56,227명, 교원 4,011명, 학급 수는 1,848교실로 나타났다.

중학교(128)에 비해 고등학교(83) 학교 수는 작지만 학생 수와 학급 수는 대체로 비슷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인문교육과 직업교육 등으로 다양하며 이에 따라 학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과 같이 교육여건도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65년 25.8명에서 14.0명으로 감소하였고, 학급당 학생수도 46.4명에서 30.4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여성 교원의 비중이 중등학교와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1965년(5.6%)에 불과하던 여성 교사 비중이, 1970년(6.0%), 1980년(13.3%), 1990년(17.8%), 2000년(36.9%), 2015년(45.3%)를 나타나고 있다.

● 학생 수 ● 교원 수



단위 : 개교, 명

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계	여	계	여			
1965	36	16,146	4,169	626	35	25.8	46.4	348
1970	43	21,001	6,759	770	46	27.3	55.6	378
1980	62	66,258	25,766	2,030	270	32.6	55.2	1,201
1990	67	74,697	33,904	3,322	590	22.5	51.8	1,441
1995	73	68,413	32,323	3,464	689	19.7	46.5	1,471
2000	76	65,887	31,392	3,479	938	18.9	42.0	1,567
2005	79	54,497	25,842	3,531	1,108	15.4	32.4	1,683
2010	83	60,897	28,193	3,719	1,373	16.4	33.2	1,833
2011	83	60,674	28,140	3,863	1,528	15.7	33.0	1,837
2012	84	60,067	28,093	3,948	1,617	15.2	32.6	1,844
2013	83	58,950	28,189	3,933	1,687	15.0	32.3	1,827
2014	84	57,924	27,778	4,002	1,758	14.5	31.5	1,838
2015	83	56,227	26,959	4,011	1,818	14.0	30.4	1,848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 학교 수 계산시 분교, 폐교 제외, 교원수는 정규교원(휴직교원 포함) 및 기간제 포함

공공도서관 **39**개
열람석 **10,131**개

도서관! 문화체험공간으로 거듭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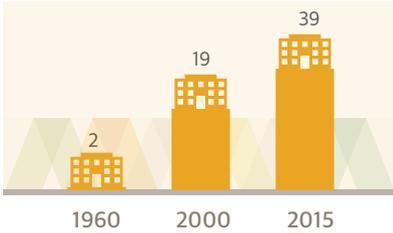
1960년 2개소에 불과했던 도내 공공도서관은 2015년 현재 19배 증가한 39개, 직원 수 172명, 열람석 10,131개, 장서 수 2,985,486개로 집계되었다.

최근들어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문화인프라로서 인식되면서 도시 지역은 물론이고 시군 지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건립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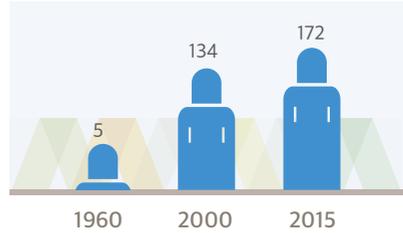
고무적인 현상은 도서관 개소 보다 질적 측면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도서관 직원 수가 5명에서 172명으로 장서수가 300만권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865개로 전국의 4.5%에 불과하며,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양적 확대와 병행해 질적 확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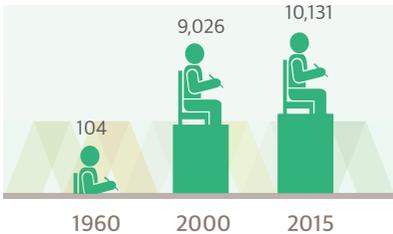
관 수(개소)



직원 수(명)



열람석 수(개)



장서 수(권)



독서체험 프로그램, 문화공연, 문화행사들이 도서관에서 기획 및 운영되면서
도서관이 더이상 책만 읽는 곳이 아닌 **문화인프라**로서 거듭나고 있어요

단위 : 개소, 명, 개, 권

구분	관 수(개소)	직원 수(명)	열람석 수(개)	장서 수(권)
1960	2	5	104	9,180
1970	2	18	476	41,311
1980	2	16	718	35,960
1990	3	67	3,332	127,978
1995	15	자료없음	6,912	403,954
2000	19	134	9,026	778,651
2005	23	172	8,627	1,466,174
2010	32	268	9,510	2,461,061
2013	39	342	9,494	2,959,888
2014	40	331	10,503	3,038,396
2015	39	172	10,131	2,985,486

자료 : 「충북통계연보」

문화재 **762**점

국가지정문화재 **25.9%**

도지정문화재 **74.1%**



도심 속 가까이 향유하는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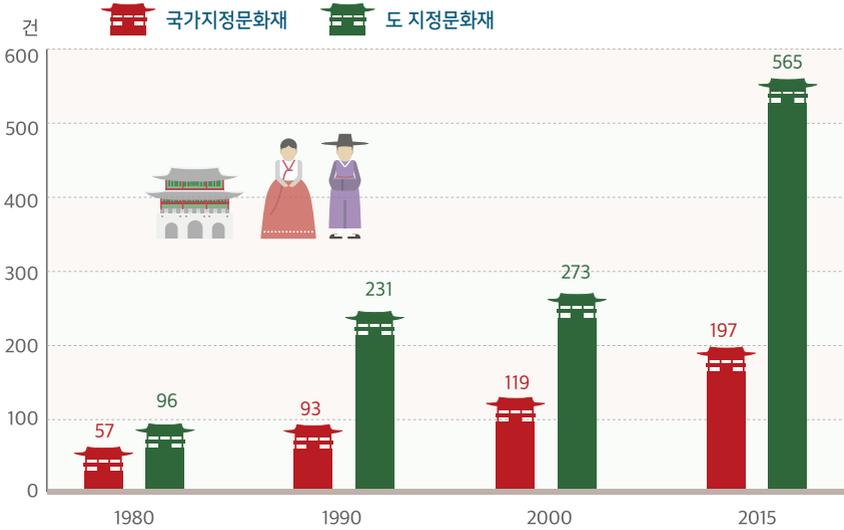
도내문화재는 모두 762점으로 1960년 24점에 비해 3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97점(25.9%), 도지정문화재가 565점(74.1%)로 나타났다.

국가지정문화재에서는 국보 6.1%, 보물 43.1%, 사적 및 명승 14.7%, 천연기념물 11.7%, 중요 민속자료 10.7%, 중요 무형문화재 1.5%, 등록문화재 12.2%로 나타났으며, 도지정 문화재에서는 유형문화재 53.8%, 기념물 23.0%, 민속문화재 3.5%, 무형문화재 4.8%, 문화재자료 14.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충청북도의 문화재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각종 문화자원 자원 발굴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문화재 지정 현황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제는 발굴된 문화재를 보전하고 계승하는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되고 있는 문화자원 발굴로
우리 충청북도 문화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단위: 건

구분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민속 자료	중요 무형 문화재	등록 문화재	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무형 문화재	문화재 자료
1960	24	24	14	-	-	10	-	-	-	-	-	-	-	-	-
1970	35	35	5	16	3	11	-	-	-	-	-	-	-	-	
1980	153	57	8	27	5	15	1	-	1	96	64	32	-	-	
1990	324	93	8	33	10	21	21	0	-	231	149	64	7	-	
1995	376	97	8	34	11	21	21	2	-	264	165	85	9	5	
2000	420	119	10	46	17	23	21	2	-	273	172	85	9	7	
2005	576	150	13	73	19	22	21	2	12	364	226	109	15	14	
2010	698	190	12	80	28	23	22	3	22	508	270	118	17	22	
2013	746	193	12	82	27	24	21	4	23	553	295	127	20	27	
2014	756	194	12	82	29	23	21	3	24	562	301	130	20	27	
2015	762	197	12	85	29	23	21	3	24	565	304	130	20	27	

자료: 문화예술과, 충북통계연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단양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 도담삼봉

남한강의 맑고 푸른물이 유유히 흐르는 그 한가운데 솟은 세개의 봉우리

단양팔경 중에서도 제1경으로 손꼽히는 도담삼봉은 일찍이 조선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의 유년시절을 함께해 준 훌륭한 벗이자 퇴계 이황 선생의 시심(詩心)을 흔들어 놓은 명승지이기도 하다. 원래 강원도 정선군의 삼봉산이 홍수 때 떠내려와 지금의 도담삼봉이 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33 ☎ 043-421-3182



◉ 구인사

취당굴에서 시작한 웅장한 사찰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커다란전체는 작은 시작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다.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 사찰로서, 전국에 140개나 되는 절을 관장하고 있는 구인사도 처음에는 작은 암자에서 시작되었다. 1945년 연화봉 아래 자리를 잡은 상월원각 스님은 손수 취당굴을 엮어 삼간초암을 짓고 그곳에서 정진 끝에 큰 깨달음을 얻어 지금의 구인사를 창건하게 되었다고 한다.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 043-423-7100



● 온달관광지

고구려의 역사 속으로

단양에서 영춘면으로 가는 길은 내내 남한강을 끼고 달리며, 때로는 강가에 기암절벽이 시선을 압도하기도 하는 대단히 수려한 드라이브 코스이다. 영춘면으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방향을 틀어 구인사로 향하다 보면 거대한 기와의 물결이 화려한 온달관광지 입구에 오른다.

고구려의 명장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을 테마로 한 온달전시관을 비롯하여 온달산성, 온달동굴 등 명승지를 모아놓은 곳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떡 벌어진 풍채를 자랑하는 드라마세트장이 눈길을 끈다.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온달로 23 ☎ 043-423-8820



● 단양온달문화축제

청명한 가을, 역사속의 온달장군과 평강공주를 만날 수 있는 곳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온달산성에서 신라군에 맞서 용감히 싸우다 전사한 온달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개막식 및 불꽃쇼로 시작되어 온달장군 진혼제, 온달장군 선발대회, 전투놀이, 온달평강 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 개최 및 고구려 저갓거리 운영을 통해 고구려관련 의상 체험, 놀이문화 체험 등의 고구려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더해진다.

📍 단양읍 일원. 영춘면 온달관광지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안전재해



142 화재발생

충북화재발생, 실화 비중 88.5%로 가장 높아

144 교통사고

도내 교통사고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

146 풍수해 발생

내륙도로 풍수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충북!

148 범죄 발생 및 검거

범죄발생은 12배 이상 검거는 11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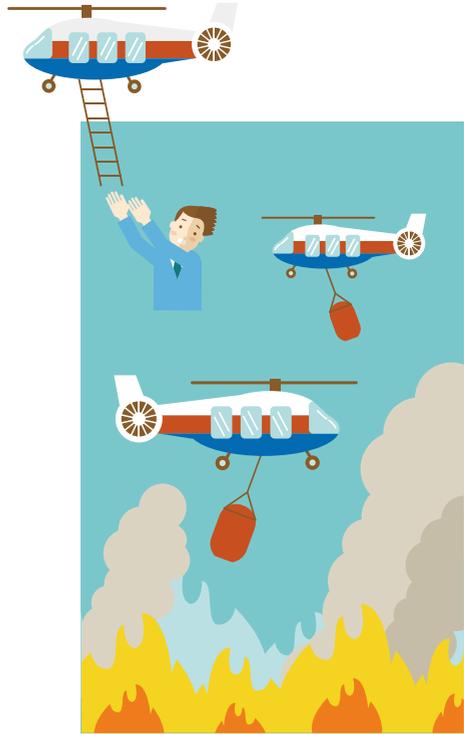
150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도내 범죄 폭력, 절도가 대부분

화재발생

2015년 기준
화재발생 **1,373**건
방화 **2.5**%
실화 **88.5**%
기타 **9.0**%

충북화재발생,
실화 비중 88.5%로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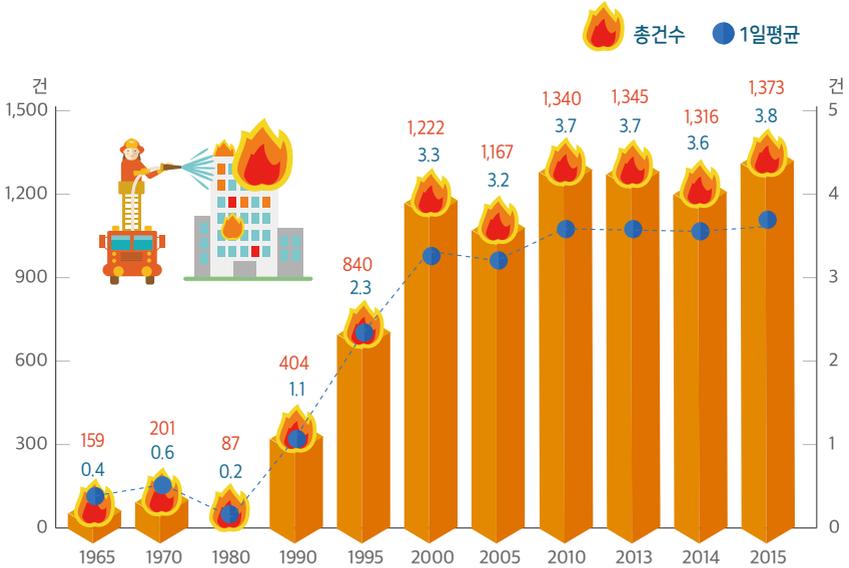
현재 충북의 화재발생은 1,373건(2015년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방화(2.5%), 실화(88.5%), 기타(9.0%)로 실화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내 화재발생은 지속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1965년 159건에서, 1970년(201), 1980년(87), 1990년(404), 2000년(1,222), 2010년(1,340), 2015년(1,373)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1일 평균 화재발생 비율도 1965년(0.4), 1970년(0.6), 1980년(0.2), 1990년(1.1), 2000년(3.3), 2010년(3.7), 2015년(3.8)로 2000년대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더 이상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며 일정 수준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충북은 화재 사망자는 분석결과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화재발생의 주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철저한 준비는 더 큰 재산사고를 예방 할 수 있어요



단위 : 건

구분	화재 발생				1일평균
	총건수	방화	실화	기타	
1965	159	12	108	39	0.4
1970	201	7	146	48	0.6
1980	87	3	78	6	0.2
1990	404	24	230	150	1.1
1995	840	28	596	216	2.3
2000	1,222	62	813	347	3.3
2005	1,167	74	341	752	3.2
2010	1,340	78	1,157	105	3.7
2013	1,345	49	1,191	105	3.7
2014	1,316	52	1,145	119	3.6
2015	1,373	34	1,215	124	3.8

자료 : 대응예방과, 국민안전처(화재현황통계), 총복통계연보

교통사고

2015년 기준
교통사고 **9,335**건
사망자 **238**명
여성 비율 **24.4%**



도내 교통사고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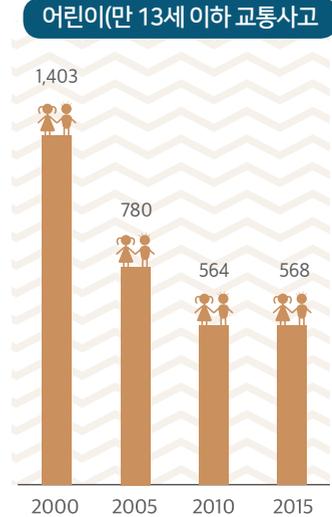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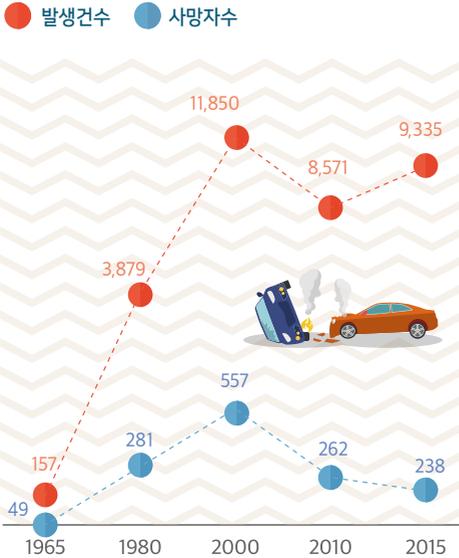
2015년 기준으로 총복의 교통사고는 9,33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사망자 238명(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15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24.4%로 나타나고 있다. 부상자 14,927명이고 여성의 비율은 37.6%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어린이(만 13세 이하) 교통사고는 568건으로 사망자 3명, 부상자 734명으로 조사되었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는 1980년 이후 급증하여 1995년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0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 역시 1990년 66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부상자도 거의 동일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집계가 시작된 2000년(1,403건)에서 2014년 현재 568건으로 급감하였으며, 사망자 역시 32명에서 3명으로 부상자도 1,719명에서 734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감소추세가 뚜렷한 것은 도민들의 성숙해진 교통의식과 함께 지속적 단속과 안전지도가 병행된 결과로 판단된다.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양보의 미덕으로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어요



단위 : 건, 명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인구 10만명당	계	인구 10만명당
1960	157	49	4	247	18
1970	724	133	9	1,168	80
1980	3,879	281	20	4,269	300
1990	9,644	661	49	12,986	968
1995	11,374	618	45	15,844	1,155
2000	11,850	557	37	18,416	1,224
2005	7,455	285	19	12,289	826
2010	8,571	262	18	14,032	949
2011	8,696	265	18	14,178	960
2012	8,636	280	18	14,410	933
2013	8,501	286	18	14,222	910
2014	8,937	253	16	14,759	917
2015	9,335	238	15	14,927	-

구분	어린이(만 13세 이하) 교통사고		
	건수	사망	부상
2000	1,403	32	1,719
2005	780	13	995
2010	564	5	746
2011	522	3	675
2012	571	4	747
2013	554	4	711
2014	568	3	734

자료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통계」

※ 1960년 : 충북통계연보

풍수해 발생

2015년 기준
사망 및 실종 **0**명
이재민 **0**명
피해액 **3,731**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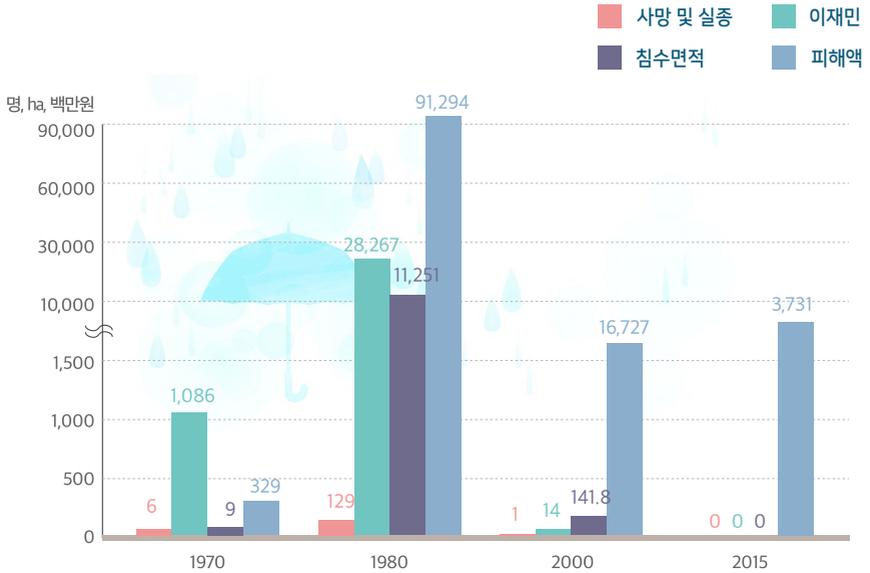
내륙도로 풍수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충북!

충북은 내륙도라서 바다와 인접한 타도와 달리 풍수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현재 사망 및 실종(0명), 이재민(0명), 침수면적(0Ha), 피해액 3,731백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풍수해 현황은 시계열적으로 일정한 추세를 나타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1970년과 비교해볼 경우 사망 및 실종이 1980년에는 126명 있었으며, 2009년 이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대 이후 이재민의 비중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침수면적도 이와 비례해서 나타나고 있다.

충북은 비교적 풍수해 발생에서 안전한 지역이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현상이 잦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충북은 집중호우나 태풍과 같은 풍수해 발생에서
안전한 지역이에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조심은 **안전**을 위해 준비하세요



단위 : 명, ha, 백만원

구분	사망 및 실종	이재민	침수면적	피해액
1970	6	1,086	9	329
1980	126	28,267	11,251	91,294
1990	15	3,783	2,995.5	84
1995	4	1,287	7,719	73,532
2000	1	14	141.8	16,727
2005	3	17	185	9,009
2006	2	1,011	795	95,058
2007	0	118	54	5,814
2008	1	82	73	6,312
2009	0	5	93	20,850
2010	0	7	79.33	20,817
2011	0	22	1.65	-
2012	0	18	9.95	17,203
2013	0	3	0.06	1,950
2014	0	0	0	4.5
2015	0	0	0	3,731

자료 : 치수방재과, 충북통계연보

범죄 발생 및 검거

2015년 기준

범죄발생 **54,143**건

검거 **44,949**건



범죄발생은
12배 이상
검거는 11배 증가

총북의 2015년 도내 범죄 발생 건수는 54,143건이고, 검거는 44,949건이다. 한편, 전체 범죄 인원은 56,786명으로 조사되었다.

1960년과 비교해볼 경우 범죄발생은 1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검거는 11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검거 건수는 1960년 4,140건에서 1980년 17,850건으로 증가됐고, 2000년 50,478건으로 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후 2015년에는 44,949건으로 약간씩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범피양상이 과거와 달리 묻지마 범죄나 소시오패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범죄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안전한 충북,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드내 치안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단위 : 건

구분	전체 범죄	
	발생	검거
1960	4,271	4,140
1970	20,333	18,135
1980	21,862	17,850
1990	35,385	31,622
1995	41,978	37,052
2000	59,485	50,478
2005	56,546	48,673
2010	54,358	45,592
2011	48,235	36,235
2012	50,477	38,078
2013	52,060	40,785
2014	50,856	40,986
2015	54,143	44,949

자료 : (2010~2015)충북지방경찰청 「충북경찰통계」
※ 2005년 이전 : 충북통계연보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2015년 기준

5대 범죄 발생 **17,605**건

검거 **13,172**건

검거율 **74.8%**



도내 범죄 폭력, 절도가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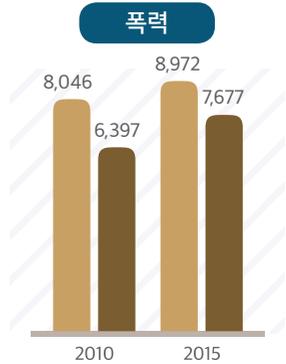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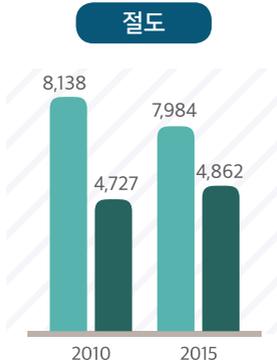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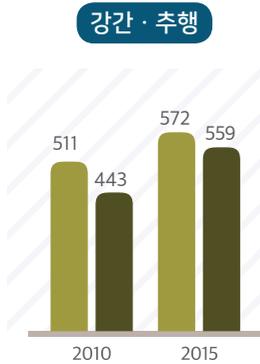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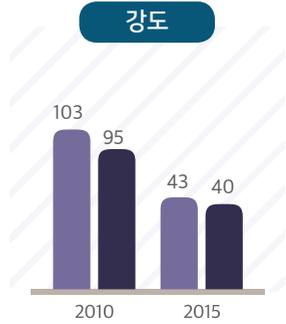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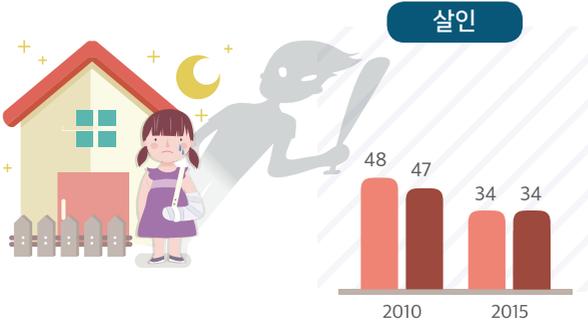
2015년 기준으로 통상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및 추행, 절도, 폭력)의 도내 발생건수는 17,605건이고 검거가 13,172건으로 74.8%의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다.

5대 범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도내 범죄는 2011년(19,732건)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검거율은 2012년 10,755건 이후 지속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범죄 발생 비중을 살펴보면 폭력(51.0%), 절도(45.4%), 강간 및 추행(3.2%), 강도(0.2%), 살인(0.2%)이며, 분야별 검거율은 살인(100.0%), 강도(93.0%), 강간 및 추행(97.7%), 절도(60.9%), 폭력(85.6%)로 집계되었다.

최근 범죄 양상이 흉포화, 잔인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때 CCTV 등 방범 인프라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화 · 지능화 되고 있는 범죄,
CCTV 등 방범 인프라 확충이 되어야 해요



단위 : 건, 명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 추행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10	16,846	11,709	48	47	103	95	511	443	8,138	4,727	8,046	6,397
2011	19,732	11,014	46	45	108	92	507	412	10,365	3,880	8,706	6,585
2012	18,239	10,755	39	39	83	71	501	433	9,158	3,559	8,458	6,653
2013	18,125	11,908	34	36	54	51	584	520	9,087	4,684	8,366	6,617
2014	17,271	12,060	33	34	55	57	526	504	8,260	4,503	8,432	6,962
2015	17,605	13,172	34	34	43	40	572	559	7,984	4,862	8,972	7,677

자료 : (2010~2015)충북지방경찰청 「충북경찰통계」
※ 2005년 이전 : 충북통계연보

숫자로 보는 충북 50년사

발행일 | 2016년 10월

발행인 | 충청북도지사

발행처 | 법무통계담당관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문화동)

Tel. 043)220-2342

※ 무단 복제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